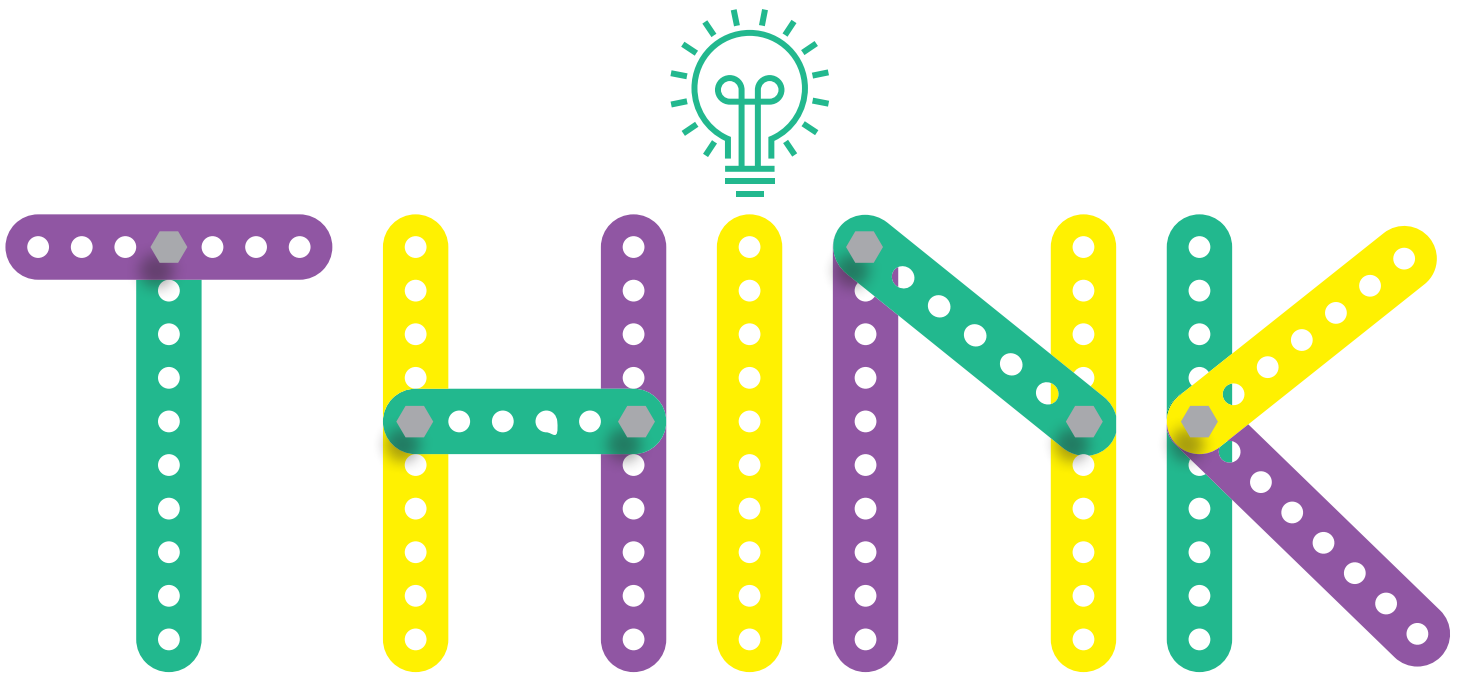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

2015. 3 + 4 vol. 132

우리의 생각은 상상하기에 따라 무한대로 커져서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추진력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각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인데요.
새로운 시작을 앞둔 모두의 생각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걸림돌은 사라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긍정적인 생각만이 부풀어 오르길 기대해 봅니다.



한양대학교의료원
HANYANG UNIVERSITY MEDICAL CENTER

삼라만상(森羅萬象)의 생명력을 담아냅니다

세상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시기입니다. 얼어있던 물이 흐르고, 초목의 싹이 돋아나며 완전한 봄을 맞이합니다. 예로부터 봄의 절기 중 하나인 경칩(驚蟄)이 되면 삼라만상이 깨어나 마침내 봄으로 향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기나긴 겨울을 끝나치고 새로운 생명력이 소생하는 활기찬 봄을 함께 맞이하고자 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은 이번 호부터 총 6회에 걸쳐 ‘수술 잘 하는 병원’을 주제로 한양대학교의료원의 전문화된 의료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3+4월호에서는 ‘수술 잘 하는 병원’ 그 첫 번째 주제로 ‘대장암’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한양대학교의료원은 건강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적정성 평가와 진료량 평가에서 1등급을 받으며 암에 특화된 병원임을 증명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혈액종양내과, 소화기내과, 외과에서 바라본 대장암을 살펴보고, 병의 예방과 치료에 대해 알아보니다.

겨우내 뽀뽀 얼었던 씨앗이 싹을 피우고, 햇살의 따사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계절이 왔습니다. 움츠렸던 몸과 마음에 기지개를 켜고 만물의 생명력을 온 몸으로 품어 내시기 바랍니다. 모든 생명력이 생동하는 이 순간, 한양대학교의료원도 환자분들의 건강한 봄을 기원하며 삶의 소중한 순간을 함께 기억해 나가겠습니다.



SPECIAL THEME

수술 잘 하는 병원 ① 대장암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 3+4월 호에서는 ‘수술 잘 하는 병원’ 시리즈 그 첫 번째, 대장암의 특성과 예방 및 치료 방법을 다룹니다. 한양대학교의료원을 찾는 모든 분들의 삶의 질이 조금 더 윤택해지길 바라는 의료진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02 즐거운 편지 | 삼라만상(森羅萬象)의 생명력을 담아냅니다

04 안녕하세요, 선생님 | 정진혁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08 Love, Life | 조금 느리지만 분명한 꿈을 향해

SPECIAL THEME

수술 잘 하는 병원 ① 대장암

12 환자, 다학제적 접근 그리고 치유

14 수술, 생존율 그리고 조기검진

16 평가, 1등급 그리고 한양대학교병원



18 Hanyang Topic |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당뇨전문병동’

22 미디어 속 건강주치의 | 드라마 〈미생〉 속 ‘급성 피로’

24 베스트 파트너 | 두리의원

26 Dr. Opera | 리하르트 바그너 오페라 〈로엔그린〉

28 Dr. Movie | 사랑이 뭔지도 모르면서 여전히 사랑을 찾는다

30 예술과 의술의 만남 | 클로드 모네 & 백내장

32 고마운 당신에게 | 뇌출혈로 쓰러진 남편 곁을 지키는 박현숙 님

34 Hanyang News | 유방암 적정성 평가 1등급 외

37 언론 속 한양인

38 발전기금

42 문화캘린더

43 외래진료 시간표

발행처 한양대학교의료원 대외협력실 발행일 2015년 3월 2일 통권 132호 발행인 박충기 주소 133-792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1

대표전화 02-2290-8114 Homepage <http://www.hyumc.com> 기획·편집디자인 큐라인 02-2279-2209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은 한양대학교의료원에서 펴내는 격월간 매거진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은 한양대학교의료원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주소가 변경되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2290-9533

안녕하세요, 선생님
한양대학교의료원 의료진의 '喜怒哀樂', 의사로 살아가는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슈퍼맨 교수님을 아시나요?

정진혁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대학병원의 '교수'라는 직함에는 진료, 연구, 후학 양성이라는 세 가지의 묵직한 책임이 얹어져 있다. 여기에 고
객지원센터 실장이라는 막중한 타이틀까지 하나 더 얹어 하루 24시간, 켄겔음으로 병원 곳곳을 누비는 정진혁
교수. 일의 가중에 보통 사람 같으면 얼굴을 찌푸릴법한데도, 그는 늘 웃고 늘 에너지가 넘친다. 정진혁 교수를
보고 있으면 의사 가운 너머에 흑 파란색 슈퍼맨 슈트를 감추고 있는 건 아닌지 고개를 가웃거리게 된다.

글. 이지연 사진. 김상민

마음에서 비롯된 일

만나면 반가운 사람이 있다. 먼발치에서부터 하얀 치아를 드러내고 한껏 ‘반가움’을 드러내는 사람이 그러하고, 미소가 만연해 보고 있으면 절로 웃음이 나는 사람이 그러하다. 이런 사람과의 대화는 십분 긍정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대부분이라 시간이 어찌 가는지 헤아리기 어려울 때가 많다. 하여, 이들의 존재는 줄 서서 기다려야 하는 베스트셀러처럼 언제나 인기 만점이다. 보이지 않는 보조배터리 하나를 더 장착한 듯 시종일관 밝은 기운을 뿜내는 정진혁 교수와의 인터뷰도 한 권의 베스트셀러를 읽는 듯 설레고 즐겁다. 세상 살이에 제법 눈을 뜬 40대 중반의 나이, 그럼에도 정진혁 교수는 소년처럼 맑고 호기심 어린 눈동자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다.

그는 군대를 다녀온 몇 년을 제외하고는 한양대학교구리병원에서 의사생활의 대부분을 보냈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이 건립된 다음해인 1996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이곳에서 인턴, 레지던트, 전임의, 조교수, 부교수를 거쳐 지금의 이비인후과 교수가 됐으니 그 세월만 자그마치 20년이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의 변화와 성장 과정을 고스란히 봐온 사람답게 정진혁 교수는 남다른 애정과 주인의식으로 병원을 가꾸는 일에 앞장선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단순한 직장 개념을 넘어, 반평생 가까이 함께 해온 소중한 곳이에요. 이곳에 뿌리내리며 저 역시 의사로, 교수로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 평생의 직장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이 지역 주민들에게 존경 받고, 신뢰 받는 병원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미약하나마 보탬이 되고 싶어요. 더불어 제 아이들에게도 아빠가 근무하는 병원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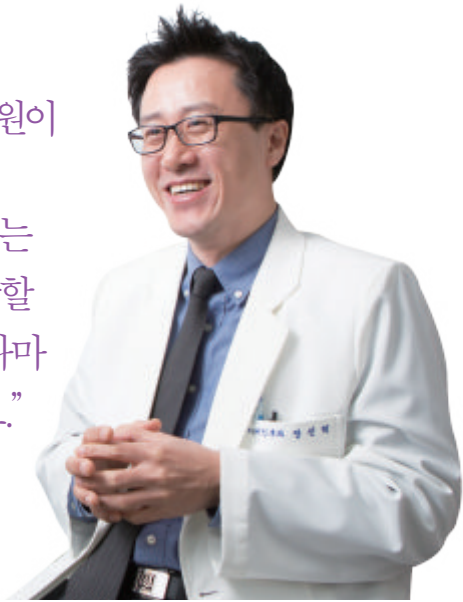
거침없이 술술 내뱉는 친근한 화술과 밝은 인상 덕분일까. 정진혁 교수는 전임교원으로 발령 받은 2년 후인 2007년부터 2011년까지 4년 동안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홍보실장을 겸직하기에 이른다. 당시 한양대학교구리병원에는 직함뿐이었던 홍보실 업무를 체계화하고 인력과 시스템을 보강해 제대로 된 ‘홍보실’의 역할을 정립한 것이 바로 정진혁 교수였다.

그는 온라인 건강상담, 구리보건소 건강강좌 개설은 물론 병원 내 홍보 게시판을 설치하고, 주차타워에 대형 광고판을 설치하는 등 발로 뛰며 살아있는 홍보실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부족한 홍보·마케팅 전문지식은 ‘브랜딩’, ‘병원 전략’ 등 전문서적을 읽으며 아이디어를 찾는 열의로 이어졌다. ‘대충’을 싫어하는 타고난 수술의로서의 꿈꿨던 기질이 적재적소에서 빛을 발하며, 병원에도 작은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던 시절이었다.

흔들림 없이 굳건했던 꿈

미국 스탠포드대학 이비인후과 교환교수로 1년 6개월의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2014년, 그의 귀환을 기다렸다는 듯 다시 1층 고객지원센터의 실장으로 발령받은 정진혁 교수는 예의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는 ‘진심’을 무기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마음을 조금씩 사로잡고 있다. 최근에는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을 처음 찾은 고객에게 ‘첫 방문’ 스티커를 붙여주는 제도를 시행해, 의료진과 직원들이 한마디라도 더 자세히 안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낯선 공간에서는 작은 호의도 크게 와 닿는 법이라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은 세심한 배려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이 지역 주민들에게 존경 받고, 신뢰 받는 병원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미약하나마 보탬이 되고 싶어요.”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고객지원센터 실장으로 발령받은 정진혁 교수는 병원을 처음 찾은 고객에게 ‘첫 방문’ 스티커를 붙여주는 제도를 시행해, 의료진과 직원들이 한마디라도 더 자세히 안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낯선 공간에서는 작은 호의도 크게 와 닿는 법이라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은 세심한 배려다.



“작은 것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병원이 발전하고 바뀌는 것을 본다면 누구라도 오지랖을 펴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긍정적인 변화를 바라보는 것이 제게는 큰 즐거움이거든요. 이런 변화는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과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실천해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힘들어도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동력이 동료애와 팀워크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쯤 되면 그의 직업이 이비인후과 의사인지, 홍보·마케팅 혹은 CS 컨설턴트인지 헷갈리게 마련이지만, 정진혁 교수의 꿈은 어렸을 때부터 변함없이 의사였다. 초·중·고등학교를 거치며 생각의 크기가 자랄 때에도 이 장래희망만은 굳건히 제자리를 지켰다.

“왜 그랬는지 뚜렷이 기억나진 않지만 장래희망이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좋아 그림 그리고, 만드는 걸 즐겨 했는데 그 재주가 의사라는 직업과 연결되면서 이 손재를 살려 수술하는 파트를 전공해야겠다 결심했죠. 그 중에서도 마이크로적인 섬세한 수술을 요하는 이비인후과를 선택하게 됐어요.”

정진혁 교수는 귀와 코, 목을 관장하는 이비인후과 파트 중에서도 유난히 ‘코’에 마음이 끌렸다. 현재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내에서 부비동염(축농증), 비중격 및 코막힘, 알레르기 비염, 코골이, 코 성형 등 코와 관련된 모든 코 질환 치료와 수술을 담당하고 있다. 축농증 수술이 메인인 정진혁 교수는 최대 수술 건수를 달성하며 2007년 10월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개원기념일에 총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는 수치화된 수술 건수보다, 수술을 통해 환자의 병을 완치해 삶의 질을 개선해준다는 것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환자가 가족에게 소개할 수 있는 의사가 되고 파

정진혁 교수는 2012년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석당우수논문상을 수상하는 등 활발한 연구 활동도 하고 있다. 미국 스탠포드대학 연수 시절에는 매일 새벽까지 연구에 매진해 총 3편의 국제저명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했고, 무리한 탓에 건강이 악화되면서 7kg 감량이라는 뜻하지 않은 다이어트에 성공했다.

다이어트 효과 덕분인지 요즘 ‘동안’ 소리를 자주 듣는 통에 기분 좋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정진혁 교수는 기분 좋은 에너지를 받아 ‘천식이 동반한 축농증’ 완치법을 연구 중에 있다.

“축농증 수술은 재발이 잘한다는 오해가 있는데요. 이런 편견을 바로 잡고 싶어요. 과거에는 지금과 수술방법이 달라 재발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HD급 내시경, 섬세한 수술기구, 심지어 의료용 내비게이션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수술을 통해 재발률이 뚜렷하게 줄었고,



90% 이상 완치가 가능해졌어요. 다만 위에서 말한 천식이 동반한 축농증의 경우는 완치가 어렵기에, 새로운 치료법을 연구 중입니다.”

이비인후과 질환은 평소에는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묵묵한 존재들이다. 그러나 감기라도 걸려 코가 꽉 막힐 때면, 그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비인후과가 생명을 다루는 분야라기보다, 인간의 삶의 질을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정진혁 교수의 9살 난 아들이 그려준 한 장의 그림에는 이비인후과 의사들의 숙명과도 같은 목 디스크 때문에 아파 누워있는 아빠의 모습이 상단에, 축구를 하며 놀아주는 아빠의 모습이 하단에 그려져 있다. 그리고 그 그림 위에는 순서대로 X표와 O표가 큼지막하게 표시돼 있다. 정진혁 교수는 ‘아빠, 아프지 말고, 빨리 나아서 나랑 축구 하지’는 아들의 마음을 읽고는 가슴이 찡했다 고백한다.

“제 가족에게, 환자들에게 인정받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제게 치료 받았던 환자들이 다음에 자기 가족을 데리고 병원을 찾을 때 말할 수 없이 기분이 좋아요. 가족을 데리고 온다는 건, 저를 믿는다는 뜻이니까요.”

아빠이자 남편, 교수이자 의사, 연구자이자 고객지원센터의 실장. 정진혁 교수의 이름 앞에는 책임을 동반한 무수히 많은 수식어가 따라 붙는다. 그럼에도 그는 이 ‘책임’을 책임이라 규정하지 않고, ‘즐거운 역할’이라 단언한다.

소년의 맑은 눈을 가진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의 슈퍼맨 정진혁 교수는 오늘도 병원 곳곳 자신의 손길이 닿는 곳에 소소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며, 환자와 눈을 맞추고 교감한다. 그리고 이것은 슈퍼맨 교수의 즐거운 일상으로 자리잡는다. 🌟

조금 느리지만 분명한 꿈을 향해

정진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경외과 교수 & 권택민 군

하고 싶은 것도, 하기 싫은 것도 많은 15살의 택민이는 올해 중학교에 입학한다. 입학을 앞두고 준비할 것도 많지만 요즘 택민이의 관심사는 오로지 축구뿐이다. FC 바르셀로나에 열광하고, 축구부에 들어가 원하는 만큼 뛰고 싶은 아이는 생각만큼 힘든 병과 싸우면서도 생각보다 단단히 자리주었다. 5년 전 모야모야병으로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을 찾은 택민이의 주치의 정진환 교수의 미소에서 택민이가 곧게 성장하리란 확신이 들었다.

글. 황원희 사진. 김상민

“택민이가
지금처럼만
웃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재활치료도
축구도 열심히
할 거예요.”



시련을 극복하는 힘, 신뢰

2010년 9월의 어느 날,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 앉아버린 택민이는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급하게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응급실을 찾은 아이는 새벽 5시가 될 무렵 모야모야 뇌경색이라는 생소한 병명을 진단받았다.

“처음에는 어이가 없었죠.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다리에 힘이 없어 걷질 못하는 거예요. 그때 무언가 단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했죠.”

택민이 아버지 권기훈 씨는 5년 전을 생각하면 아직도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다. 고작 9살밖에 되지 않은 아들의 병명은 이름도 낯선 모야모야병. 원인도 알 수 없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다. 택민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큰 병이었다.

“인터넷으로 모야모야병을 검색해봤어요. 설명은 많이 나와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 뇌혈관에 문제가 생겼다는 정도는 파악했죠. 동시에 택민이를 위해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만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러던 중에 정진환 교수님을 만났고, 덕분에 약해졌

던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죠. 워낙 꼼꼼히 잘 챙겨주시니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었거든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만 큰 부모와 객관적인 판단력을 필요로 하는 의료진의 입장은 간혹 부딪히기 마련이다. 처음에는 권기훈 씨 역시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에 처음에는 정진환 교수와 의견 차이를 겪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진실된 마음을 읽을 수 있었고, 5년이 흐른 지금은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다.

몸과 마음을 치유하다

모야모야병은 뇌에 흐르는 내경동맥의 끝부분에 이유 없는 협착이나 폐색이 보이며, 모야모야 혈관이라는 이상 혈관이 관찰되는 것을 말한다. 주로 10세 이하의 어린 아이와 30~40대의 성인에게서 발병하는데 발병 시기에 따라 증상에 차이를 보인다.

택민이와 같은 소아의 경우는 혈관이 쪼그라들면서 제대로 된 혈액 공급을 받지 못하는 뇌경색 소견으로 병원을 방문하게 된다. 팔다리에 일시적으로 마비 증상이 나타나거나 발음에 장애가 생기고 시력

이 저하되는 증상이 이에 해당한다.

“택민이를 처음 만났을 때 말이 어눌하고, 오른쪽 팔에 전혀 힘이 없었어요. MRI로 검사했을 때 왼쪽 뇌에 손가락 한 마디 크기의 뇌경색 소견이 보였는데 9살 아이에게 뇌경색은 굉장히 생소한 질환이어서 혈관검사를 통해 모야모야병을 진단했죠.”

정진환 교수는 택민이에게 간접문합술을 권했다. 뇌혈관에 직접문합술을 시행하기에는 택민이의 뇌혈관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행히 어린 아이의 모야모야병은 간접문합술로도 충분한 치료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문제는 없었다.

“첫 해에 왼쪽 뇌를 수술하고, 1년 정도 경과 후 오른쪽 뇌 수술을 진행했어요. 양쪽 뇌 모두 수술해야 했는데 왼쪽이 더 시급했거든요. 왼쪽 뇌에서 이미 증상이 발견되어 수술을 바로 진행해야 했고, 상대적으로 오른쪽 뇌는 기능이 크게 떨어지진 않아서 조금 회복된 후 수술을 진행했어요.”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택민이는 곳곳하게 버텼다. 정진환 교수는 그런 택민이가 대견스러울 뿐이다.

목표가 있는 삶을 꿈꾸다

택민이는 두 차례의 큰 수술을 받았다. 그에 따른 수술비, 입원비, 검사비 등 각종 의료비는 가족에게 부담으로 다가왔다. 담당 주치의로서 환자의 사정을 알고 있던 정진환 교수는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회복지팀에 의료비 지원을 의뢰했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의료진과 사회복지팀의 협력 체계는 환자들의 후원금 지급을 위해 이뤄지며 택민이 가족처럼 지원이 필요한 환자에게 먼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의 수술을 끝마친 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회복지팀은 보호자와의 상담을 진행하고 택민이의 의료비 지원을 추진했다. 택민이는 홍농의료지원재단 긴급의료비와 본원 사회복지 후원금으로 수술비를 지원받았고, 2013년에는 세이브더칠드런에서 검사 비용을 지원 받았다. 2015년에 들어서는 블루멤버스어린이재단과 홍농의료지원재단에서 추가적인 의료비 지원을 받았다.

“수술 후 매년 검사를 받고 입원할 때마다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웠죠. 다행히 한양대학교구리병원에서 사회단체를 통해 의료비를 지원해 주셔서 부담을 덜 수 있었어요.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권기훈 씨는 경제적인 지원을 이끌어 준 정진환 교수와 사회복지팀에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희귀난치성질환을 겪는 아들의 상처가 채



가시기도 전에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했던 그는 이제 아픔은 묻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더 이상 아프지 않고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꾸준히 재활치료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과 택민이의 웃음을 지켜주는 것이 목표예요.”

평범한 아빠로 돌아간 권기훈 씨의 새로운 바람은 올해 중학교에 입학하는 택민이가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다.

“중학교에 입학하면 축구부에 들고 싶어요. 축구가 좋아서요. 온 몸을 움직여야 하는 운동치료가 힘들긴 한데 축구선수가 되려면 게을리 하지 않으려고요.”

천천히 그러나 담담하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 택민이, 그리고 그 꿈을 응원해주고 싶은 정진환 교수의 얼굴에 미소가 스민다.

“택민이가 워낙 밝아서 걱정이 없어요. 본인도 재활치료에 대한 의지가 강하니까 상태가 더 악화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해요. 묵묵히 잘 견뎌내 주는 택민이가 지금처럼만 웃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정진환 교수는 자신의 바람과 택민이의 꿈이 어느 따뜻한 봄날 새싹이 느리게 솟아나듯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한다.

“중학교에 입학하면 축구부에 들고 싶어요. 축구가 좋아서요. 온 몸을 움직여야 하는 운동치료가 힘들긴 한데 축구선수가 되려면 게을리 하지 않으려고요.”

천천히 그러나 담담하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 택민이, 그리고 그 꿈을 응원해주고 싶은 아빠의 얼굴에 미소가 스민다. 정진환 교수는 힘든 상황에서도 항상 밝게 웃어 보이는 택민이가 대견하다. 그리고 택민이가 꿈을 꾸는 아이로 성장할 것이라 확신한다. 🍀

환자, 다학제적 접근 그리고 치유

대장암(Colorectal cancer)은 갑상선암, 위암 다음으로 국내에서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종이다. 식생활의 서구화 및 비만 인구의 증가 등으로 그 발생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연간 변화율이 5.2%로 수 년 내에 위암을 뒤로 밀어내고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종이 될 전망이다. 진단 시 25%의 환자들에서 명확한 전이 병변이 발견되며, 나머지 환자들에서도 치료 기간 중 25~35%에서는 추가적인 전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전이성 대장암(Metastatic colorectal cancer) 환자들은 미국이나 유럽의 유수의 지침들에서 진단 초기에서부터 치료 중간 과정, 그리고 치료 종료 후 추적 관찰에 있어서 다학제적 접근(Multidisciplinary approach)을 강력히 권장하고 있다.

환자를 분류하고 치료하다

전이성 대장암 치료에 있어 혈액종양내과적인 관점을 살펴보면 유럽 종양학회(European Society for Medical Oncology, ESMO) 지침에서는 전이성 대장암 환자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 Group0** 진단 당시부터 전이 병변까지 명확히 수술적 절제가 가능한 환자
- Group1** 당장 수술은 불가능하나, 적극적인 항암치료 및 표적치료를 통해서 이후 수술적 절제가 가능할 수 있는 환자
- Group2** 적극적인 항암치료 및 표적치료에도 불구하고 향후 수술적 절제가 힘들 것으로 여겨지는 환자
- Group3** 어떠한 유도 요법으로도 향후 수술적 절제를 고려할 수 없는 환자

각 군별로 항암치료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면,

- Group0** 진단 당시부터 원발 병변 및 전이 병변의 완전 절제가 가능한 환자에서는 우선적으로 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 수술 전·후에 항암치료를 추가하는 것이 수술 단독에 비해서 무질병 진행기간을 연장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생존기간에는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이지 못했다. 최근 들어 수술 전 항암 치료가 미세 전이의 억제 및 항암제 감수성을 평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 도입되고 있으며, 다양한 항암제 투여 순서 및 표적치료제와 병합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Group1** 가장 적극적인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한 환자군으로 적절한 유도 화학 요법을 통해 원발 병변 및 전이 병변의 완전 절제가 이루어진다면, 장기 생존 및 완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군이다. 이 환자군에서 항암 치료 약제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반응률(Response rate, 종양의



크기가 수축하는 비율)로, 현재까지는 항암제에 항-EGFR 또는 항-VEGF 표적치료제를 추가하는 것이 이득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종양 검체에서 K-RAS, N-RAS 같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어떤 환자에게, 어떤 종류의 표적 치료제를 쓰는 것이 가장 알맞을지 결정할 수 있다. 가장 적절한 수술 전 항암치료 기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고된 연구가 없지만, 많은 기관에서 3~6개월 정도의 치료기간을 가지고 중간 평가를 하면서 수술 시기를 결정한다. 또한 약제의 독성 등을 고려해서 항-VEGF 표적 치료제로 유도 항암치료를 했을 경우에는 수술까지의 기간을 조금 더 고려해야 할 수 있다.

Group 2 & 3

이러한 환자군에서는 유도 화학요법의 역할이 적기 때문에, 근치를 목적으로 한 치료보다는 증상 조절 및 생명 연장을 목적으로 치료를 하게 된다. 누적 치료에 따른 약제 독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전신 상태, 동반 질환 등을 고려해서 약제를 선정해야 하고, 독성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의료진의 진료가 필요하다. 항암 치료 반응 및 독성에 따라서 잠깐 치료를 중단하고 경과를 보는 기간(Chemo-holiday)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으나, 이 같은 경우 중간에 병이 진행되었을 때 급여가 되지 않는 것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다학제적 접근을 기본으로 하다

전이성 대장암의 치료에 있어서 어떤 환자에서 어떤 치료를 우선적으로 하며, 이후에는 어떤 치료를 보조로 할지를 정하기 위해서는 진단 당시부터 하부위장관외과, 소화기내과, 혈액종양내과, 간담도외과, 흉부외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방사선종양학과 등 많은 의료진이 환자 상태 및 치료 반응을 평가하면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

수술, 생존율 그리고 조기검진

대장암은 암으로 발전하기 전 단계인 용종 단계에서 발견하면 간단한 수술만으로 제거가 가능하다. 암세포가 점막층까지 국한되어 있고 크기가 작은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절제만으로도 병변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시경적 점막절제술은 수술 과정도 간단하며 경우에 따라 수술 당일 퇴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암이 진행되면 수술을 통해 암세포를 제거해야 하며 1기에서 2기, 3기로 진행될수록 병변으로부터 더 넓은 거리를 두고 잘라내야 하기 때문에 생존율이 떨어진다.



글. 이항락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환자의 수술 부담을 줄이고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조기 검진을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다. 특히, 대장암의 경우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어 조기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내시경으로 들여다 본 대장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되면 그나마 수술로 암세포 제거가 어려워 항암화학요법을 행하는데 생존율이 10%대 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환자의 수술 부담을 줄이고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조기 검진을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다. 특히, 대장암의 경우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어 조기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암과 마찬가지로 대장암 초기에는 대부분 아무런 증상이 없으며 증상이 나타난 경우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다. 대장암의 주된 증상으로는 갑자기 변을 보기 힘들어지거나 변 보는 횟수가 변하는 등의 배변 습관의 변화, 배변 후 변이 남은 느낌, 혈변, 복부 불편감, 체중 감소, 피로감, 식욕 부진,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있다.

병기별 특징

	진행 단계	치료 방법	생존율
1기	점막하층 또는 근육층까지만 국한된 경우	내시경적 절제, 외과적 수술	90% 이상
2기	암이 장막하층까지 침윤, 장막층을 뚫은 경우	외과적 수술 후 항암화학요법	70%
3기	장막층에 침윤이 있거나 주위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	외과적 수술 후 방사선치료/항암화학요법 또는 수술 전 위와 동일	30~50%
4기	주위 장기로 전이된 경우	환자 수행 능력에 따라 항암화학요법, 필요 시 방사선 치료 검토	10%

대장 내시경 검사가 필요한 경우

고지방식 저섬유질 식습관

대장암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인의 식생활이 육류, 인스턴트 식품 등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을 다량 섭취하는 서구형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동물성 지방을 줄이고 채소, 과일과 같은 식이섬유를 많이 먹는 것이 좋다. 평소 육류를 많이 섭취하는 사람은 대장 내시경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을 것을 권한다.

배변 습관 변화

대부분의 대장암 환자들은 갑자기 변을 보기 힘들어지거나 변 보는 횟수가 변하는 등 배변 습관에 변화가 생겼다고 호소한다. 또한 암이 커지며 장기에서 피가 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혈변을 본 경우 대장 내시경 검사를 꼭 받아야 한다.

가족력

대장암은 가족력이 있는 사람에게서 발병률이 높게 나타난다. 특히 가족성 용종증이 있는 경우 반드시 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한다.

40세 이상

40세 이상부터는 암 발병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암은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한참 진행된 경우가 많으므로 40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위 내시경은 매년, 대장 내시경은 5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한다.

체중 감소

암이 많이 진행되면 전신 상태가 좋지 않아 체중이 감소하게 된다.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하는 경우 내시경 검사를 받아 본다. 📞

평가, 1등급 그리고 한양대학교병원

한양대학교병원 대장항문외과는 2011년 대장암 부분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이루어진 이후 지난 4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1등급 평가를 받아 이 분야 국내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고 있다. 이런 자랑스러운 성적을 낼 수 있었던 데에는 소화기내과, 혈액종양내과, 영상의학과 등 다른 진료과와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력 진료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으며 항상 최고를 추구하는 대장항문외과 모든 의료진들의 열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표준화된 치료 시스템을 갖추다

본원 대장항문외과의 장점 중 첫 번째는 환자 편의에 맞춘 외래 진료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진료과 특성상 응급수술을 요하는 환자가 많은 만큼 월요일 오전부터 금요일 오후까지 두 명의 대장항문 전문교수가 항상 교대로 진료를 보기 때문에 대장암 환자뿐 아니라 단순항문질환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들도 진료를 보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리는 일이 없도록, 환자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하는 것이 의료진의 기본적인 방침이다.

두 번째는 두 명의 대장항문 교수가 환자를 보고 있음에도 한 명의 교수가 보는 것과 같은 표준화된 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병원 내에서 교수마다 수술법과 치료 방침의 차이가 있는 타 병원들과 달리 두 명의 교수가 단일화, 표준화된 수술 기법과 치료계획을 공유함으로써 체계적인 치료와 환자 진료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

이런 표준화된 치료는 언제 어떠한 경우, 어떤 의사에게라도 동일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환자 입장에서 의료진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고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합병증 제로, 불만 제로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고 내세울 만한 장점은 국내·외 어디에도 뒤떨어지지 않을 만한 수술의 우수성이다. 병기가 높은 일부 진행성 대장암의 경우에는 고식적 개복술을 시행하나 대부분의 대장암에 대해 복강경 수술, 로봇 수술과 같은 최소침습수술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술은 환자의 통증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조기 회복이 가능케 한다.

또한 직장암의 경우 최신헤수술기법인 괄약근간 절제술을 시행, 항문 보존비율을 높이고 영구장루 조성의 빈도를 낮춤으로써,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였다. 이러한 표준화된 치료와 최신헤수술기법의 도입으로 한양대학교병원 대장암 환자의 장기 생존

글. 안병규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외과



율, 재발률과 같은 주요 암 치료 성적은 국내 다른 병원과 비교하여 최상위권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어 한양대학교병원 대장암 수술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수술 후 환자 관리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합병증 제로, 불만 제로인 대장항문외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암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신체적인 질병의 치유도 중요하지만 암이라는 질병으로 인해 받은 정신적인 충격에 대한 치유도 중요한데 이를 위해 대장항문외과에서는 환자들의 마음까지 힐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수술 환자가 수술 다음날부터 조기 보행 및 경구섭취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는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금식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합병증 빈도를 낮추고 조기 회복, 조기 퇴원이 가능하게 한다. 합병증 없이 조기에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완치의 기대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환자와 보호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킨다. 이를 위해 5명의 창상·장루 전문간호사가 환자의 상처와 장루를 집중관리 함으로써 창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합병증의 빈도를 줄일 뿐 아니라 수술 직후부터 퇴원 후까지 맞춤형 교육과 정신적 지지를 통해 환자들의 정신적 충격과 장루 관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준다. 또한 암센터와 영양센터는 대장암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대부분 겪게 되는 식이습관, 배변습관의 변화, 항암치료를 받으며 발생하는 여러 합병증에 대해 체계적인 교육과 친절한 상담으로 회복기 환자들의 든든한 정신적 버팀목이 되어 주고 있다.

본원이 대장암 수술 적정성 평가 1등급을 4년간 꾸준히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듯 외과 교수진의 열정과 우수한 수술 실력 외에도 작은 부분까지도 환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모든 의료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앞으로도 본원은 대장암 수술을 잘하는 병원, 환자가 충분히 만족하고 퇴원할 수 있는 병원, 믿고 맡길 수 있는 병원을 향해 정진할 것이다. 🏆

당뇨병 환자들의 생활습관을 변화시켜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당뇨전문병동'



지난해 12월 23일, 한양대학교구리병원에 '당뇨전문병동'이 문을 열었다. 15년 가까이 당뇨병 연구를 해온 내분비내과 이창범 교수와 의료팀은 혈액검사, 당뇨영양교육, 당뇨운동 교육 등 일주일 프로그램을 개발해, 당뇨병 환자들의 잘못된 생활습관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문을 연지 불과 한 달, 내분비내과 의사들의 숙원이었던 당뇨전문병동은 오랜 세월 당뇨병과 싸우느라 몸과 마음이 지쳐있던 환자들의 '희망의 캠프'가 되고 있다.

글. 이지연 사진. 김성민

짜임새 있게 완성된 7일간의 계획

점심식사 후 졸음이 쏟아지는 오후 1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7층 당뇨전문병동 중앙홀로 입원환자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매일 같은 시간, 한 시간씩 진행되는 '당뇨운동교육'을 위해서다. 환자들과 마주선 의료진은 모니터를 통해 나오는 건강체조 움직임을 몸소 따라하며, 환자들의 길잡이가 돼주고 있었다. 환자들 역시 의자에 앉아 팔을 뻗어 올리고, 박수를 치며 진지하게 체조에 임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들이었지만, 팔과 다리를 움직이고 발끝과 손끝을 스트레칭 하는 사이, 몸속이 따뜻해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이에요. 당뇨병 환자는, 밥을 먹으면 혈당 수치가 확 올라가는데, 이렇게 간단한 운동을 매일 규칙적으로 하면 식후 혈당 수치를 떨어트릴 수 있죠.” 당뇨전문병동의 수장인 이창범 교수는 병에 관한 사전 지식이 많은 환자라 해도 스스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 당뇨병 관리의 포인트임을 강조했다.

당뇨병은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만들어지는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인슐린 작용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발생한다. 발병의 원인은 유전적 소인도 있으나 과식, 비만, 운동부족, 스트레스 등 후천적 환경 요인에 의해 발병하기도 한다.

“요새 사회문제가 되는 뱃살 비만, 대사증후군 등이 당뇨병의 일종이죠. 이런 병들은 결국 살아가는 방식의 문제, 잘못된 생활습관 때문에 생깁니다. 결국 치료 방법도 살아가는 방식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돼야죠.”

이창범 교수팀은 환자들의 생활습관 개선을 위해 '7일간의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입원환자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35개의 베드가 마련된 당뇨전문병동에서는 공복혈당체크, 자가혈당측정, 당뇨운동교육, 당뇨영양교육 등을 통해 환자 스스로 몸을 움직여 운동하는 법, 당뇨합병증에 따라 맞춤형 식단을 계획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더불어 눈의 날, 발의 날, 마음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각 요일마다 당뇨합병증에 관한 교육과 실습을 체계적으로 실행함으로써 '무서운 병'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떨치고, 당뇨병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환자의 활성화를 목표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당뇨전문병동은 크게 3가지 필요성에 의해 탄생했다. 첫째는 외래진료로는 도저히 혈당이 조절이 안 되는 환자를 위함이고, 둘째는 당뇨병과 동반한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를 위



해, 셋째는 당뇨병 환자에게 갑작스레 발생하는 응급상황을 위해서다. 이창범 교수는 이 세 가지 치료의 마지막 종착지가 생활습관 교정에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뇨전문병동의 필요성에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창범 교수는 '당뇨병 환자를 활성화하는데 꼭 필요한 시스템'이라는 확고한 말로 당뇨전문병동의 필요성을 이야기한다.

“해마다 미국 당뇨병학회에서 당뇨병 치료전략을 발표하는데요. 올해의 전략은 '환자의 활성화'입니다. 의사가 곁에 없더라도 환자 스스로 병을 관리할 수 있게끔 교육하라는 것이죠.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당뇨전문병동도 환자의 생활습관 교정을 통한 '환자 활성화'에 최종 목표를 두고 있어요. 의사들은 퇴원 후 일상생활로 돌아간 환자들이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짜인 식단에 따라 음식을 조리해 먹을 수 있도록 자극하고, 격려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물론 철저히 준비되어 있는 의사만이 환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겠죠. 저희 의료진들은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당뇨전문병동을 거쳐 간 많은 환자들이 올바른



생활습관을 몸에 익혀 지혜롭게 당뇨병을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당뇨병은 수술로 끊어낼 수 있는 병이 아니다. 완치가 되는 병도 아니다. 그렇기에 환자와 의사 모두 끈기와 인내를 요한다. 유도 초단인 이창범 교수는 수련의들에게 항상 “환자를 꼭 잡으라”고 말한다. 상대를 꼭 잡아야 제대로 집어 던질 수 있는 유도처럼, 환자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 치료를 해주어야만 대사 자체가 정상이 되어 일상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당뇨전문병동 의료진은 접촉제처럼 환자에게 딱 달라붙어 집중 관리하겠다는 마음으로 환자와 함께 한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당뇨전문병동을 거쳐 간 200여 명 환자들의 만족도 또한 높다. 대부분 기대하지 않거나 의구심을 안고 입원했다가 객관적 수치로 나타나는 신체의 변화를 경험하고는 심중팔구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퇴원한다.

퇴원 후에는 정기적인 외래진료를 통해 진행상태를 체크함으로써 꾸준한 관리를 이어간다.

세계적인 당뇨전문병동이 될 것

“당뇨병에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뿌리가 있어요. 이 뿌리는 당뇨병도 만들지만 고지혈증, 고혈압, 심지어 암의 발병에도 관여를 합니다. 당뇨병 환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당뇨합병증인데요. 저는 환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지금 뱃속에 작은 아이가 하나 있다. 그 아이가 자라면서 사춘기가 오면 말을 잘 안 듣는다. 그 때는 사춘기에 맞게 치료를 해야 한다. 어떨 때는 매도 들어야 하고, 혼도 내야하고, 또 달래도 봐야 한다. 그걸 해나가는 게 당뇨병 치료라고요. 쉽지만 어려운 이야기죠. 그래서 당뇨병은 전문가와 함께 초기에 치료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당뇨전문병동은 환자들의 원활한 치료를 위해 안과, 신장내과, 성형외과와의 협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의료팀과 간호팀이 병동에 항상 상주하고 있으며, 당뇨전문간호사가 2층과 7층을 오가며 외래환자와 병동환자를 함께 본다. 환자들의 식단 조절을 위해 전문영양사가 수시로 들러 환자들의 상태를 파악하는 건 기본이다.



이창범 교수는 향후, 병동에서 직접 음식을 펼쳐놓고 환자들의 식이습관을 조절하는 꿈을 꾸다. 운동전문가를 초빙해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운동법을 전수하려는 계획도 있다. 말 그대로 ‘당뇨병 환자들의 캠프’라는 이름으로 캠프 스타일의 교육 프로그램을 병원 내에 도입하고픈 바람이다.

“당뇨전문병동에서 몸에 익힌 생활습관들이 퇴원과 함께 일상생활로 돌아가면서 6개월 정도는 지속되리라 생각해요. 그랬을 때, 외래진료를 보러 온 환자들이 캠프 스타일의 당뇨전문병동에 들러 하루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체험하며 점점 희미해져 가는 생활습관개선 교육에 관한 기억들을 되살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당뇨전문병동이 한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당뇨전문병동으로 거듭나리라 자신합니다.”

내분비내과 의사의 꿈이라는 당뇨전문병동 개설과 함께 더 원대한 꿈을 꾸게 되었다는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당뇨전문병동 의료진들은 오늘도 당뇨병 환자들의 곁에 찰싹 달라붙어 희망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

“올해의 전략은 ‘환자의 활성화’입니다. 의사가 곁에 없더라도 환자 스스로 병을 관리할 수 있게끔 교육하라는 것이죠.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당뇨전문병동도 환자의 생활습관 교정을 통한 ‘환자 활성화’에 최종 목표를 두고 있어요.”



이창범
내분비내과 교수

Mini interview

송현숙 님

“을 1월에 동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당뇨병 진단을 받았어요. 가족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많이 당황스러웠고 내심 어떻게 해야 하나 앞이 막막하고 두려웠죠. 당뇨병 진단 일주일 만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당뇨전문병동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시작했어요. 짜여있는 스케줄대로 움직이면서 식단조절을 하고, 주기적으로 운동도 하니깐 몸이 점점 좋아지는 게 수치로 나타나더라고요. 입원하고 하루 이틀은 ‘과연 바뀔까?’ 굉장히 불안했는데 ‘할 수 있다’는 의사선생님의 격려와 칭찬 덕에 몸의 변화와 더불어 긍정적인 생각까지 갖게 됐어요.”



드라마 <미생> 신은정의 '급성 피로' 우리 아직, 미생이야



돌아가신 아버지의 낡고 큰 양복을 입고 고층빌딩 로비에 들어서는 젊은이가 있다. 어깨는 축 처져있고 자신 없는 눈빛과 어색한 차림, 장그래(임시완)의 출근 첫날이다. 검정고시 고졸 학력에, 경력도 없고, 외국어 하나 할 줄 모르는 변변치 않은 인턴, 게다가 낙하산. 복사도 제대로 할 줄 몰라 핀잔을 듣고, 은근한 무시와 따돌림, 뒷담화까지. 그가 내디딘 사회는 냉정하고 차갑다. 하지만 차오르는 쓸쓸함을 참으며 전쟁터 같은 새로운 길에 들어선다. 완생이 되기 위해, 더할 나위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글. 전진 사진. CJ E&M

“난 열심히 하지 않아서 세상으로 나온 거다”

어머니가 새로 사준 양복이 젖갈에 저러지도록 젖갈 분리 작업에 열중했지만 미리 정보를 공유한 동료들은 회식자리로 떠나고, 열심히 일한 그에게 돌아온 건 동료들의 비웃음과 무시.

“난 열심히 하지 않아서 세상으로 나온 거다. 난 열심히 하지 않아서 버려진 것뿐이다.”

회식 자리에도 끼지 못한 채 돌아서며 장그래는 읊조린다. 그의 속

울음은 세상을 헤쳐나가야 하는 직장인의 고단함과 불확실한 미래 안에서 해매는 상처입은 젊은이들의 마음을 대변한다.

비정규직 여직원의 자살로 큰 상처를 입었던 오차장(이성민)은 열심히 일하는 장그래에게 마음을 주려 하지 않고, 후에 든든한 조력자이자 형 같은 존재가 되어준 김대리(김대명) 또한 장그래가 능력 없는 청년으로 보일 뿐이다. 전화 통화도 제대로 못해 민폐 청년으로 등극한 장그래에게 인턴들이 선물 공세로 PT파트너가 되

어 달라고 러브콜을 보내온다. 장그래는 잠깐 우쭐하지만, 자신들이 돋보이고 싶은 수라는 걸 깨닫고 허탈감에 빠진다.

안영이(강소라), 장백기(강하늘), 한석울(변요한)은 장그래와 비교되는 정규직 신입사원. 그러나 명문대를 졸업한 화려한 스펙과 좋은 머리를 가진 장백기는 경험치가 부족해 경솔한 행동으로 깨지고, 안영이는 똑 부러지게 일을 잘하지만 팀원들과 융화되지 못해 진땀을 뻘다. 그들도 겉은 화려하지만 결국 불완전한 인간일 뿐이다.

상사들이라고 다를 게 없다. 오차장은 사무실에서 가족 사진을 얹어놓고 일하는 일중독자이지만, 최전무(이경영)와 사이가 좋지 않고 사내 정치에는 쟁쟁이라 승진도 늦다. 같이 입사했지만 오차장보다 빨리 승진한 선차장(신은정)은 여사원들이 선망하는 최고의 롤모델이지만, 육아와 일을 병행하며 힘들어하는 워킹맘이다. 아이에게 죄책감을 느끼는 그녀는 가사와 육아, 일까지 모든 걸 감당하다가 결국 피로 누적으로 쓰러지고 만다. 결국 사회에서는 누구도 강자가 아니며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할 뿐, 나약하고 미숙하다.

버텨라, 그것이 이기는 것이다

“우리 애만 혼났잖아.”

술 취한 오차장의 한마디에 그만두려던 생각을 접은 장그래. 혼자라고 느꼈던 하루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로 바뀐다. 장백기, 안영이, 한석울 모두 시행착오를 겪으며 성장하지만 그들과 장그래 사이에는 정직원과 계약직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한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계약직이기 때문에 받는 차별은 어찌지 못한다. 열심히 하면 정규직이 될 거라고 믿고 싶은 장그래. 회사 출입구 기둥에 오차장이 준 편지를 둘둘 말아 숨겨놓고 꺼내보며 작은 희망을 품는다.

“계속 이렇게 하면 회사에 남을 수 있겠죠.”, “욕심을 내지 말아.”

“욕심도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신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계속 일을 하고 싶은 겁니다. 차장님과 과장님과 대리님과 우리 같이.”

슬픈 눈빛으로 말하는 장그래에게 오차장은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 그를 아끼기에 덧없는 희망보다는 뼈아픈 진실을 전하는 걸 택한다. “무책임한 희망인데 위로는 무슨 소용이냐”는 오차장과 “대책 없는 한마디라도 절실한 사람이 많으니까요”라는 선차장의 대화를 우연히 엿들은 장그래, 슬프지만 그래도 버텨본다. 끝까지 버틴 후에 결과는 자신의 몫.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결코 끝이 아니라는 걸 안다. 그렇게 미생은 완생이 되길 꿈꾼다. 📺

방치하면 만성이 되는 ‘급성 피로’



박훈기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급성 피로 VS 만성 피로

피로는 사람들이 병원을 찾는 흔한 질환 중 하나이다. 피로의 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되면 일단 피로가 급성은 아니라고 보며, 3개월 이상 계속되면 만성 피로로 분류한다.

갑자기 피로가 쌓여 생활에 지장을 초래 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점검을 해야 할 것은 스트레스이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무리가 가고 적절한 휴식이 없을 때 피로는 찾아온다. 6개월 이상 휴식을 취하는 데도 효과가 없이 피로가 계속되며 여러 가지 증상이 함께 찾아오면 만성 피로 증후군도 한 가지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자주 발생하지는 않는다.

피로가 쌓이면 병이 된다

1~2개월 이내의 피로일 때는 감상선병이나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 이상, 결핵이나 감염 또는 빈혈과 같은 혈액의 병, 심장이나 폐의 이상, 간염과 같은 소화기관의 병일 수도 있다. 드물게는 신경 혹은 근육의 병일 가능성도 있다. 피로 이외에도 열이 있거나 체중이 빠지고 밤에 식은땀이 많이 나면 드물지만 암이나 감염도 의심해봐야 한다. 따라서 휴식을 충분히 취하는데도 피로가 1~2주 이상 계속되면 일단 병원을 찾아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로의 원인을 찾다

피로의 원인을 찾는 검사는 대개는 혈액, 소변, 기본 영상 검사 등으로 비교적 간단하고 저렴한 검사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이 피로의 원인인 경우도 있다. 피로의 원인이 스트레스일 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사람들은 잘 참고 견디는 정도의 부담이어서 스트레스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자기가 남들보다 스트레스에 취약한 성향이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해서 스트레스에 대한 자가 평가만으로 피로의 원인이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피로로 병원에 와서 진찰을 받고 기본 검사를 했는데도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1/3정도나 된다. 이럴 때는 일단 휴식을 취하고 2~4주 동안 경과를 지켜보고 별도로 피로의 원인이 있는지 다시 판단을 해야 한다. 규칙적인 운동, 신선한 채소나 과일의 섭취, 충분한 수면 등은 일반적인 피로 관리 방법이다.

베스트 파트너
상호 협력하는 의술로 고객의 건강과 삶을 돌봐온
한양대학교의료원의 최고 협력병원을 소개합니다.

우리 동네 사랑방 두리의원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환자를 돌보는 두리의원은 이용건 원장 그 자체이다. 과거 외과의로 전성기를 보내며 각종 수술을 섭렵했던 그는 이제 어르신들의 말벗을 자처하며 함께 대화를 나눈다. 그렇게 두리의원은 30년의 세월을 겹겹이 쌓아가며 동네 사랑방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글. 황원희 사진. 정준택

두리의원

●주소: 서울 성동구 금호동4가 624 ●문의: 02-2297-1158

30년을 한결 같은 마음으로

진료실 한 칸을 가득 채운 스크랩북에 눈길이 간다. 칸을 따라 줄지어 있는 파일들 속에는 각종 질환과 관련된 신문기사, 논문, 보고서의 한 페이지가 곱게 정리되어있다. 단정함과 수고로움이 느껴지는 동시에 이용건 원장의 세월과 정성도 고스란히 묻어있다.

“요즘은 컴퓨터에 파일을 정리하지만 처음엔 일일이 손품을 팔아 자료를 모았어요. 학문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계속해서 공부도 하고, 새로운 자료를 모으는 버릇이 생겼거든요. 지금은 제가 모은 자료를 필요한 환자분들에게 일일이 프린트해서 나눠드리고 있어요.”

1983년, 옥수동에 처음 터를 잡았던 이용건 원장은 1999년 지금의 두리의원이 있게 한 이 곳, 금호동으로 이전해 30년 넘게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지난 시간만큼이나 주변 환경은 많이 변했지만 환자들은 여전히 두리의원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개원의로 지낸 지 벌써 30년이에요. 저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환자들을 보면 시간의 흐름을 실감해요. 꼬맹이였던 환자가 어느 날은 멀쑥하게 성장해서 나타나고, 청년이었던 환자는 손자 손을 꼭 붙들고 오기도 하죠. 긴 시간 동안 잊지 않고 방문해줘서 고마울 따름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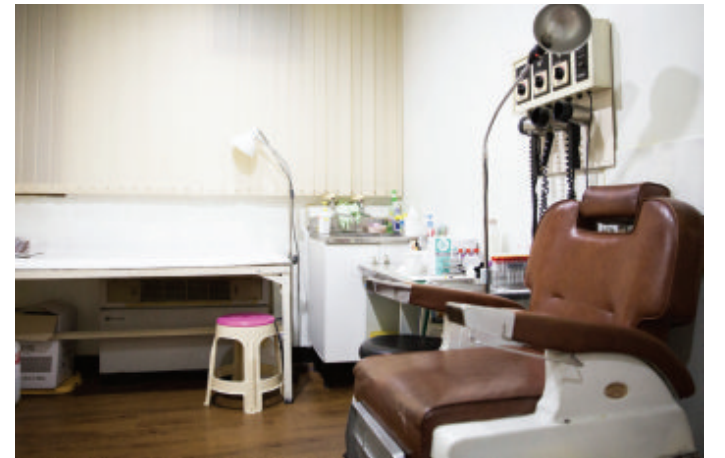
나이가 무색할 만큼 정정한 모습의 이용건 원장은 개원 초창기 외과 전문의로 많은 수술을 직접 이끌었다. 위암, 자궁암, 간소암, 췌장암 등 분야도 다양했다. 차곡차곡 쌓아온 그의 경력과 연륜은 환자를 이해하고 다독이는데 탁월한 요소가 되었다.

“예전에야 외과 수술을 많이 했었죠. 그때는 환자를 바라볼 때 병과 치료에만 집중했었거든요. 지금은 환자의 삶의 질에 좀더 집중하려고 해요. 보통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가 많이 오시는데 이런 병은 만성질환이니까 즉각적인 치료보다는 지속적인 치유를 생각해야 하거든요.”

이용건 원장은 환자의 생활요법 개선을 위해 지난 30년간의 기록을 살핀다. 자료를 조사하고, 재정비하는 것 역시 그의 일이다. ‘고지혈증 간이 생활 요법’, ‘장기별로 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과 낮추는 것’, ‘암 발생을 막는 신체 조건과 식습관 그리고 운동 기준’ 등 큼직한 글씨와 빠른 이해를 돕는 친절한 그림으로 채워진 종이 한 장은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 정보이자 환자를 향한 그의 마음을 대변한다.

친근한 동네 의사 선생님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68학번, 제1회 졸업생이기도 한 이용건 원장은 한양대학교병원에 대한 애착함도 남다르다.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이라는 한양대학교의료원의 설립 이념을 따라 환자들에게도 남다른 사



랑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나 일상 생활 속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 환자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한다. 이용건 원장이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넘어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이유는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다.

“제1의 목표가 환자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에요. 항상 ‘걱정 마세요.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운동과 식이요법은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라는 말을 가장 자주해요. 질병 자체도 중요하지만 환자분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치유에 더 신경을 쓰거든요. 약을 투여하기에 앞서 건전한 생활이 바탕이 되어야 건강한 생활도 유지할 수 있지 않겠어요.”

환자의 삶의 방식까지 꼼꼼히 신경 쓰는 이용건 원장의 진심은 진료 시간이 끝난 후 걸려온 환자와의 전화 통화에서도, 한양대학교병원에 환자를 의뢰하는 순간에도 느껴진다.

“얼마나 급하면 전화를 하겠어요. 궁금한 것, 필요한 것 다 설명해드릴요. 그리고 나서 내일 다시 한 번 방문해주시라고 말하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安心이 되는 순간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한양대학교병원 후배님들과는 계속해서 협진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요. 현재도 30~40명 이상의 환자를 교류하고 있죠. 한양대학교병원의 전문화된 치료 시스템에 대한 환자분들의 만족감이 높아요.”

한양대학교병원에 수 많은 환자를 의뢰한 이용건 원장은 조기에 암을 발견한 후 수술을 받은 뒤 건강을 회복한 환자들 이 고맙다며 두리의원을 방문할 때가 가장 뿌듯하다. 의과대학 동기들의 대부분이 이미 정년퇴직을 했지만 이용건 원장은 힘이 닿는 한 건강 지킴이로서 환자를 돌보고 싶다고 말한다. 소박하지만 또렷한 그의 목표는 두리의원을 따뜻한 동네 사랑방으로 만든다. 🏡

금단의 질문이 남긴 비극

리하르트 바그너 오페라 <로엔그린>

Wilhelm Richard Wagner Opera <Lohengrin>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묻지 마라” 혼례의 합창이 울려 퍼진다. 신방에서 백조의 기사는 사랑을 기뻐하지만, 기사에 대한 의혹과 불안한 마음으로 신부 엘자가 금지된 질문을 던지자 기사는 왕에게 엘자가 금문을 파기했다며 자신은 몬살바트 성배의 기사 로엔그린이라고 밝힌 후 성으로 돌아간다. 많은 신화에서 원하는 일을 이룰 때까지 절대로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되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등장하지만 주인공이 이를 깨트리면서 대개 비극으로 치닫는다. 오페라 <로엔그린>도 이런 ‘금지와 위반’을 기본 틀로 삼으면서 신뢰를 주제로 하기 때문에 제3막 ‘혼례의 합창’은 지금까지도 신부가 입장할 때 많이 연주되고 있다.

바그너는 중세문학 작품인 볼프람 폰 에센바흐의 「파르지팔」, 콘라트 폰 뷔르츠부르크의 「백조의 기사」, 작자 미상의 중세서사시 「로엔그린」과 그림형제의 「독일 설화집」 등을 참고해서 이 오페라를 만들었다. 그는 자주 독일신화와 중세문학의 소재에서 자신이 원하는 부분만을 발췌 각색하여 그만의 작품을 만들었다. 평소 통일된 강력한 민족국가인 독일을 열망했던 그는 ‘백조의 기사’ 로엔그린은 심리적 상처를 치료해주는 동시에 순수한 ‘독일정신’을 제시하는 예언자로 그렸고, 이 영웅의 민족적 사명을 무조건 신뢰하는 여성상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 작품에서 아리아와 해설을 섞어 말하는 기법으로 만들면서 주도동기(leitmotif)를 확립하는 등 음악적인 기법에서 큰 성과를 보였다. 등장인물의 인간적 심리 묘사는 더 면밀해졌고 오케스트라의 음색은 더 풍부해졌다. 한편 바그너의 반 유태주의가 잘 드러나 있는데 이전에 그가 경제적 곤경을 겪었을 때 느낀 유태인들에 대한 적대감이 반영되어 있다. 유태인의 상업주의가 당대 예술을 망치고 있다며 유태인들의 예술을 ‘타락의 꽃’이라고 불렀다.

드레스덴에 있을 때 오페라 <탄호이저>와 <로엔그린>을 작곡하였으나 1849년 드레스덴에서 전제정치 혁명에 동참한 바그너는 정치범으로 몰려 취리히로 망명하게 된다. 이 작품은 1850년 바이마르 극장에서 프란츠 리스트의 지휘로 초연하였으나 정작 바그너는 참석하지 못하였다. 그가 1862년 빈 극장에서 처음 연주를 하였을 때는 열광적인 환영을 받게 된다.

전주곡 일생을 바친 기사에 의해 수호된 수백 년간 몬살바트 산에 숨겨져 왔던 ‘그랄의 성배’ 주제로 천국의 분위기를 나타낸다.



제1막 안트워프의 세르데 강변. 이곳 영주인 고트프리트 공작은 아직 어려서 텔라문트 백작이 보살피고 있는데, 얼마 전 고트프리트가 행방불명 되었다. 텔라문트는 고트프리트의 누이인 엘자가 영주의 작위상속을 받으려고 야심을 품고 동생 고트프ρί트를 죽였을 것이라고 독일 왕 하인리히 1세에게 진언한다. 엘자는 왕의 배려로 신의 재판을 승낙 받고 자신을 대신하여 텔라문트와 싸울 기사로 지난 밤 꿈에서 만난 기사를 선택하겠다고 한다. 엘자가 신에게 기도를 하자 갑자기 강 위에 백조의 인도를 받아 기사 로엔그린이 배를 타고 다가온다. 꿈에서 보았던 바로 그 기사였다. 이것을 본 텔라문트와 그의 아내 오르트루트는 절망과 공포에 떠난다. 백조의 목에 감긴 쇠사슬을 보니 백조는 바로 자기들이 마법을 써 변하게 한 엘자의 동생 고트프리트였기 때문이다. 엘자는 기사 앞에 무릎을 꿇고 텔라문트와 결투해 줄 것을 부탁한다. 그러자 기사는 엘자에게 말하기를 “나를 믿어 주시오. 그리고 내가 결투에서 승리한다면 당신은 나의 아내가 되어 주오. 그러나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 이름과 혈통에 관해서는 절대로 물어서는 안 되오”라고 말한다. 마침내 기사와 텔라문트의 결투는 기사의 승리로 막이 내린다.

제2막 안트워프 성 안의 광장. 한밤중 교회계단에서 텔라문트와 그의 아내 오르트루트는 엘자와 로엔그린의 맹세 서약을 파기시키고자 엘자를 움직여 로엔그린에게 금지된 질문을 하게 계락을 꾸민다. 그때 엘자가 궁정 발코니에서 행복을 노래하고 있다. 이를 본 오르트루트는 그녀의 방에 들어가 지금까지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며 동정을 구한다. 용서를 받은 오르트루트는 기사에 대한 의심과 불신의 마음을 자극한다. 이때 왕의 시종은 텔라문트 부부의 추방과 함께 기사와 엘자의 결혼식을 포고한다. 며칠 후 혼례의 행렬과 함께 엘자가 교회로 들어가려는데 오르트루트가 나타나 저 기사는 악마라며 공포와 의심의 싹을 키우게 한다. 텔라문트는 로엔그린이 신을 기만한다며 그의 이름과 출생지를 밝힐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로엔그린은 왕에게 그것을 밝힐 수 없으나 엘자가 원한다면 대답할 수 있다고 한다.

제3막 성 안의 신부 방. 전주곡에 이어 유명한 ‘혼례의 합창’과 함께 엘자와 기사는 결혼식을 올린다. 둘만 남게 되자 엘자는 기사에 대한 의심이 솟아 금단의 질문을 하게 된다. 이때 심복들과 함께 습격을 한 텔라문트와 결투가 벌어지고 텔라문트가 죽자 심복들은 로엔그린 앞에 무릎을 꿇는다. 텔라문트의 시체를 왕 앞에 옮긴 후 실신한 엘자도 왕 앞에 옮기도록 명령한다. 기사는 왕 앞에서 자신에 대한 엘자의 신뢰가 부족하여 두 사람의 행복은 사라졌으며 자기 신분을 밝힌다. 그는 몬살바트 산에 모셔 놓은 성배를 수호하는 기사의 한 사람으로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성배의 왕 파르지팔의 아들 로엔그린이라고 밝히고 훗날 왕이 이끄는 독일은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예언한다. 자기는 신분을 밝혔기 때문에 돌아가야만 한다고 말하자 앞서 나타났던 백조가 다가온다. 이별을 앞둔 로엔그린은 엘자에게 동생은 곧 살아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며 기도를 올린다. 이때 비둘기가 내려와 백조의 목에 감긴 쇠사슬을 풀어주자 고트프리트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를 본 오르트루트는 쓰러져 죽는다. 로엔그린은 비둘기가 인도하는 배를 타고 떠나고, 엘자는 동생 고트프리트의 팔에 안겨 정신을 잃고 숨을 거두며 막이 내린다. 



글. 오재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오 교수는 미국 존스홉킨스 앙상블과 스탠포드 팔로 알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 제1바이올린으로 활약한 바 있다. 이러한 고전음악에 대한 사랑을 환자를 비롯한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위해 《필하모니아의 사계》라는 클래식 안내서를 출간하기도 했다.

들을만한 ALBUM



제스 토마스(로엔그린), 엘리자베트 그림머(엘자), 루돌프 쾰페(지휘), 빈 국립오페라(EMI, 1963)



볼프강 빈트가센(로엔그린), 비르기트 닐손(엘자), 오이겐 요훔(지휘),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Opera D'oro, 1954)



제스 토마스(로엔그린), 아나 질라(엘자), 볼프강 자발리쉬(지휘),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Decca, 1962)

사랑이 뭔지도 모르면서 여전히 사랑을 찾는다



연애의 감정은 서로에 대한 호기심에서 비롯된다. 선천적으로 우뇌에 각인된 후손번식에 대한 무의식적인 암컷, 수컷에 대한 끌림은 Sexuality(성적관심), Emotion(감정), Reason(이성)의 세 단계를 거쳐 비로소 사랑과 결혼을 통한 연애의 완성이라는 외파를 걸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사랑의 감정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어떤 식으로 유지될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이토록 어렵기에 영화는 대부분 결혼까지를 다룰 뿐 그 이후는 '잘 먹고 잘 살았다'로 끝맺는다.

결혼 5년차 부부가 있다. 루(세스 로건)는 한결같이 듄직하고 유머감각도 있다. 마고(미셸 윌리엄스)는 그런 남자에게 만족하지만 어딘지 부족한 점을 느끼게 된다. 그러던 차에 남편과는 다른 매력을 지닌 다니엘(루크 커비)이 눈에 들어 온다. <우리도 사랑일까>는 사랑이 설렘에서 익숙함으로 변하는 시점의 병적인 무료함을 매우는 여자의 일탈을 죄의식 없이 그려낸다. 마고는 길모퉁이를 돌아마자 비치는 햇살에 까닭 모를 눈물을 흘리고 우산도 없이 나온 외출 길에 맞닥뜨린 소나기에 함박웃음을 짓는 매우 감성적인 여자이다. 애정을 갈구하며 루에게 백허그를 하고 입도 맞춰보지만 그 순간의 공허함과 말이 없어지는 생경함을 더 견디기 힘들어 한다. 하지만 새로운 남자 다니엘은 마고에게 다른 접근방법을 택한다. 그간 잊었던, 서로의 몸과 몸을 언뜻 스치는 아련한 느낌과 말도 되지 않는 농담과 게임을 이야기며, 의미는 없지만 그때 그때 감정에 충실한 정신적 배설에 열중하게 만드는 호기심과 설렘을 받아들이는 마고.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결혼기념일 외식을 하지만 직업이 요리사인 루는 아무 말도 없이 식사를 음미하며 음식 지상주의자로서의 면모를 드러낸다. 마고는 이런 루를 책망하고 뭐라도 말해보라고 하지만 루는 손을 잡고 몇 초간 눈을 맞추고는 '사랑한다'는 영혼 없는 속삭임으로 끝맺는다. 결국 마고의 마음이 다니엘에게 향한 것을 알아 찬 루는 아무 조건 없이 마고를 보내주고 그녀는 다니엘의 등대집을 찾아가 다시 한번 사랑의 설렘을 찾고자 한다.

영화 맨 처음 장면 주방에서 요리를 하다가 주저앉아 카메라를 응시하던 마고의 옆에 실루엣으로 처리된 남자는 남편이 아닌, 짧디 짧은 호기심과 설렘을 충족한 후 다시 공허해진 새로운 남자의 그것이었다. 영화 제목에서 '우리'란 5년 결혼생활을 함께 한 남편이 아닌 몇 개월간 불 같은 사랑을 함께 한 새로운 남자를 의미한다. 이렇듯 짧은 유효기간을 지닌 설렘으로서의 사랑이란 감정은 실로 불가해하고 항상 굴러갈 준비를 하고 있는 얇힌 실타래와도 같다.

국어대사전에는 '사랑'을 '1) 어떤 사람이나 사물,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 2) 남을 이해하고 돕는 마음. 또는 그런 일. 3) 남녀 혹은 동성간(2014년 새롭게 추가)에 그리워하거나 좋아하는 마음. 또는 그런 일.'로 정의하고 있다. 시인 문정희는 사랑을 '청춘의 열정이지만 한편 결혼 생활의 지혜'라고도 했다. 아울러 남편이란 존재를 '아버지도 아니고 오빠도 아닌 아버지와 오빠 사이의 촌수쯤 되는 남자'라고 규정짓기도 했다. 사랑 및 그 대상에 대한 유효기간을 다룬 깊은 성찰이 2014년 후반기를 강타했다.

<남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는 76년의 결혼생활을 영위한 89세 할머니와 98세 할아버지를 다룬 다큐멘터리이다. 이들은 항상 서로를 어루만지며 어딜 가든 고운

빛깔의 커플 한복을 입고 두 손을 꼭 잡고 걷는 노부부이다. 사계절 내내 꽃을 꺾어 머리에 꽂아주고, 개울가에서 물장구를 치고, 낙엽을 던지며 장난을 치고, 눈싸움을 하는 매일 매일이 신혼 같은 백발의 노부부. 둘만의 세상을 함께 했던 친구였던 강아지 '꼬마'를 묻고 오던 날부터 할아버지의 생명력은 불길한 기침소리와 함께 눈에 띄게 약해져 할머니는 곧 찾아 올 영원한 이별을 준비하게 되고, 홀로 된 할머니는 그리움에 목놓아 울게 된다. 결국 사랑은 둘 만이 공유하는 절대적으로 상대적인 가치임을 담담하게 드러내고 있다.

프로이트는 자기보존적 본능과 성적 본능을 합한 삶의 본능을 Eros(에로스, 쾌락원칙)라 했고 공격적인 본능으로 구성되는 죽음의 본능을 Thanatos(타나토스, 죽음 충동)라 하였다. <감각의 제국>은 열정과 죽음이라는 사랑의 두 가지 양면성을 극명하게 표현한 영화이다. 사랑했기에 헤어지는 게 아닌, 사랑했기에 그의 심볼만 취하며 껍데기는 내던져 버린 불륜의 사랑, 길티 플레저(Guilty pleasure)의 비극적 종말이다.

사랑은 때때로 종말을 어떤 방식으로 맞이하게 될지 묻기도 한다. <아무르>는 단란하게 살던 80대 음악가 노인이 어느 날 연이어 찾아온 부인의 뇌졸중과 이로 인한 반신마비, 인지저하, 그리고 중국엔 더 이상 예전의 그녀가 아닌 울부짖기만 하는 몸뚱이와 마주치는 이야기를 담아낸다. 그가 생각하던 그녀는 우아하고 사려 깊고 분별력이 있으며 총명한 눈이 빛나던 단아한 그녀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소통도 되지 않는 짐승이 되어버렸다. 사랑의 궁극적 행위는 상대방을 품위 있게 대해주는 것이라 생각한 그는 그녀를 베개로 질식시킨 후 정성껏 단장한 꽃들로 주검을 장식한다.

사랑을 의미하는 프랑스어 Amour(아무르)는 부정과 극복을 뜻하는 접두사 a-와 죽음을 뜻하는 어근 morte이 합쳐서 만들어졌다. 사랑은 죽음에 대항하여 이를 넘어서는 숭고한 감정으로서 영화 속 초로의 부부들이 보여준 이별의 준비와 그 실행은 고대 로마의 전쟁을 앞둔 장군의 일성을 뛰어넘은 Memento mori(죽음을 기억하라)의 또 다른 해석이기도 하다. 즉, 영생(永生)은 꿈이 아니고, 죽음도 필연이 아닐 수 있으며, 만일 우리가 순간을 놓치며 산다면 그것은 영원을 놓치는 것 일수도 있다. 사랑(행복)을 고통 없는 세상을 사는 낭만적 개념이 아닌 스스로 상처를 돌보고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주어지는 만족의 과정(상태)으로 볼 수 있다면 더더욱 그러하다.

무심히 들었던 존 레논의 노래 'Love'의 몇 구절은 그래서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Love is touch, touch is love. Love is reaching, reaching is love. Love is asking to be loved. Love is knowing (what) we can be. Love is living, living is love. Love is needing to be loved. (사랑은 어루만짐. 사랑은 다가가는 것. 사랑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사랑.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게 사랑. 사랑은 살아있는 것. 부족해서 사랑 받으려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래도 사랑이 시효를 지났다고 말할 수 있을까? 🌈



글. 이형중 한양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교수

이 교수는 기자를 꿈꾸었던 학생시절의 재능과 영화에 대한 사랑을 살려 '영화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다. 그의 글이 쉽지만 깊이 있는 까닭은 흥행 영화부터 예술 영화까지 다양한 장르를 섭렵하고, 틈틈이 영화 전문서적을 읽어온 내공 덕분이다.

볼만한 MOVIE



우리도 사랑일까(2011)

감독 : 사라 폴리

출연 : 미셸 윌리엄스, 세스 로건, 루크 커비



남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2014)

감독 : 진모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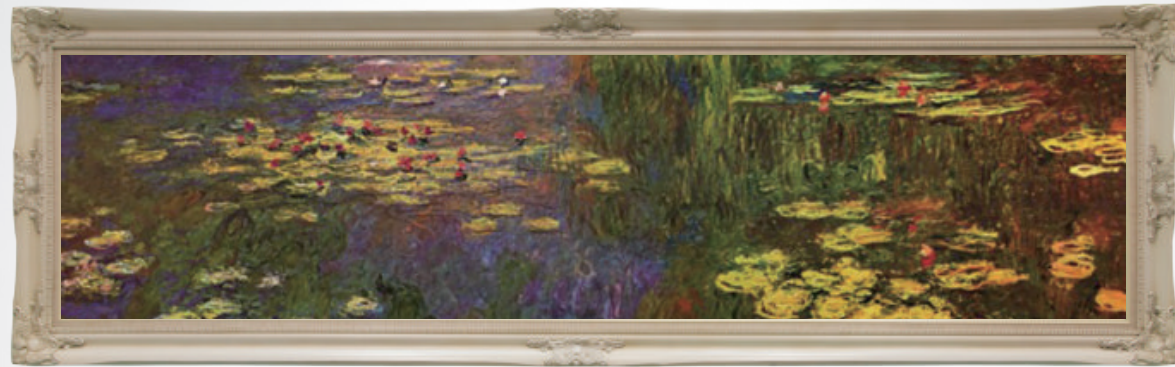
출연 : 조병만, 강계열



아무르(2012)

감독 : 미카엘 하네케

출연 : 장-루이 트린티냥, 엠마누엘 리바, 이자벨 위페르



고뇌의 빛으로 물든 세상을 그리다

클로드 모네 & 백내장

프랑스의 화가 클로드 모네(Claude Monet, 1840~1926)는 〈인상 : 해돋이〉, 〈생라자르 역〉, 〈수련〉 등의 작품을 그린 인상파 양식의 창시자로 유명하지만, 그의 말년은 순탄치 않았다. 화가의 생명인 눈에 백내장이 생겨 심한 심적 그리고 육체적 고통을 겪었기 때문이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존경하고, 그 모습을 고스란히 화폭에 담아낸 그의 세계관과 질환에 대해 살펴본다. 글. 송인석 한양대학교병원 안과 교수



새로운 시선으로 그려낸 세상

클로드 모네가 앓았던 백내장은 눈에서 카메라의 투명한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하는 수정체가 그 고유의 투명함을 잃고 혼탁해져 사물이 흐리게 보이는 질환이다.

사람들은 모네의 후기 작품들을 분석하면서 백내장이 그의 화풍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수련 연작 시리즈는 모네의 화풍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는데, 초기에는 이 그림들은 섬세하게 표현되다 점차 대담하고 거친 붓 터치로 묘사되기 시작하여, 사물의 윤곽 역시 뚜렷하지 않고 면과 선의 구분이 매우 흐릿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선의 구분뿐 아니라, 작품의 전체적 톤과 색채 역시 점차적으로 변해가는데, 초기에는 푸른색을 포함한 다채로운 색이 사용되었다면 후기에는 색상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고 노란색과 붉은색 계통이 주가 된다.

그가 앓았던 백내장이란 병을 감안한다면, 백내장이 심하게 진행되어 수정체가 노랗게 변하게 되면 가시광선 영역 중에서 노란색의 보색인 푸른색은 차단되고, 상대적으로 파장이 긴 노란색과 붉은색은 통과시키게 되어 생기는 현상이 그림에 반영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현대의 우리들이 몽환적이라고 느꼈던 그의 색채와 표현 방식은, 사실은 그의 눈에 비친 세상 그 자체였는지도 모르겠다.

모네는 화가에게는 시한부 선고나 다름없었던 눈의 질환, 백내장에 굴하지 않고 새로운 화풍으로 표현된 걸작들을 후세에 남겼으나, 그 자신의 고뇌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글씨조차 또렷하게 읽고 쓸 수도 없어졌고, 스스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림을 그리고 또 캔버스를 펜나이프로 찢어버리며 그림을 포기해야 하는지의 기로에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했던 것이다.

모네에게 권하고 싶은 ‘다초점 인공수정체’

통상적으로 백내장을 일으키는 데는 당뇨, 아토피와 같은 전신질환이나 복용하는 약물 그리고 자외선 등의 인자가 관여할 수 있으나 노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

눈으로 들어오는 자외선을 적절히 차단하고, 금연 및 체질량 지수 조절, 항산화제 투여 등이 백내장의 예방 및 증상악화를 막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모네는 실외, 자연광 아래에서 빛과 풍경을 묘사해내는 작가였으며 담배를 피우는 자화상을 그릴 정도로 애

연가이기도 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모네의 백내장 증상은 점점 심화되었으며 의사 권고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한동안 거부한다.

그러나 그가 두려워했던 백내장 수술의 역사는 이미 오래된 것으로, 고대 인도에서는 이미 ‘발와술(撥窩術)’이라 하여 혼탁하고 딱딱해진 수정체를 눈 속으로 그대로 밀어 넣는 수술법으로 치료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모네가 백내장을 앓던 시절에는 눈에 절개를 크게 내어 칼로 백내장을 제거한 후 수정체가 없는 상태에서 두꺼운 볼록 렌즈 안경을 착용하곤 하였다. 그러다가 백내장 수술의 역사에 획기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인공수정체의 발명과 초음파유화술이 그것이다.

수정체는 카메라의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하는 조직이어서 이를 제거하게 되면 과거에는 그 도수에 상응하는 두꺼운 돋보기 안경을 대신 착용하여야 했으나 무겁고 상의 왜곡이 심하며 시야도 좁게 보이는 단점이 있었다. 이런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전투기 조종사의 비행기 위 뒷개가 깨지면서 그 조각이 눈 속으로 파고들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눈에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 것에 착안해 1949년, 세계 최초로 리들리 박사에 의해 런던의 성 토마스 병원에서 성공적으로 인공수정체 삽입술이 이뤄지게 되면서 백내장 수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현재는 인공수정체 삽입과 초음파유화술로 각막에 2~3mm 정도의 작은 절개창만을 내어 혼탁해진 백내장을 초음파로 쪼개어 흡수시키고 본래의 수정체를 대신할 수 있는 인공수정체를 삽입함으로써 이전의 시력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인공수정체에도 여러 가지 기술이 접목되어 단순히 눈의 굴절 이상인 도수만을 교정하는 기능에서부터 난시를 해결하기 위한 난시 교정용 인공수정체, 그리고 노안을 극복하기 위한 다초점인공수정체 등이 발명되어 백내장과 난시, 그리고 노안치료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다. 모네는 1923년인 당시 83세 때까지 백내장 수술을 거부하다가 비로소 수술을 받았다.

모네가 현대적인 안과 기술의 도움을 받아 고민의 여지없이 좀 더 이른 나이에 백내장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의 작품들은 어떻게 달랐을까, 그리고 더 많은 작품들을 후대에 남기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해본다. 🌐





“결코 희망을 잃지 않을 거예요”

뇌출혈로 쓰러진 남편 곁을 지키는
박현숙 님의 편지

든든한 어깨로 가족을 지켜주던 가장의 부재는 더욱 크게 다가온다. 응급 수술 후 진료과를 넘나들며 겪은 고비만 수 차례, 그와 가족은 꽤나 힘든 시간을 함께 버텼다. 그리고 환자의 아내 박현숙 님은 모두의 아픔을 위로해준 이형중 한양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교수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

정리. 황원희 사진, 박승주



믿고 의지하는 이형중 교수님께

아직도 그 날이 생생하네요. 작년 7월 25일날 급하게 한양대학교병원을 찾았어요. 남편이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나서였죠. 지병을 앓고 있지는 않던 터라 큰 병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병원에 도착해보니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뇌출혈이라니…… 정말 아무 생각도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죠.

그때 저희 가족이 유일하게 믿고 의지한 분이 바로 이형중 교수님이었어요. 응급실에서부터 열까지 친절하게 설 명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니까요. 남편의 상태가 좋지 않아 외과에서 내과, 중환자실 그리고 다시 외과와 내과를 옮겨 다닐 때도 항상 상태를 확인해 주시고, 결국엔 제 환자로 맞아 끝까지 신경 써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 지 몰라요.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남편의 상태를 확인해 주시던 이형중 교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주었어요. 그런 관심이 환자에게는 정말 최고의 선물이지요. 감사하다는 말 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예요.

이건 나중에 안 사실인데 저희 딸 아이가 이형중 교수님께 먼저 연락을 했다고 해요. 얼마나 장담했으면 그랬을까 싶는데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서 덕분에 마음의 안정을 찾은 것 같아요. 최근에는 남편과 딸의 이야기를 글로 옮겨서 기고문도 내셨다고 해요. 저로 글을 읽었는데 한 구절 한 구절이 제 마음에 라 닿더라고요.

처음엔 절망감이 컸지만 지금은 조금씩 마음을 다잡아가고 있어요. 곳곳하게 이겨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츰차츰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가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싶거든요.

항상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함을 담아
박현숙 드림



박현숙 님에게

박현숙 님과 따님 현아 씨의 얼굴이 또렷이 기억에 남아있어요. 전폭적으로 믿어주시는 의사 입장에서선 굉장히 고마운 길이었죠. 보통 외과 의사는 수술만 끝내면 그 역할이 끝나기 때문에 환자의 속사정이나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큰 연극 고리가 없어요. 그런데 환자분의 사정도 듣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니까 인연이 이렇게 이어졌네요.

무조건적으로 저를 믿어준 박현숙 님과 현아 씨에게 저 역시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환자라 보호자의 믿음이 의사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거든요. 지금처럼 희망을 잃지 않고 긍정적으로 삶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이형중 드림



한양대학교의료원

유방암 적정성 평가 1등급 선정

본원은 지난해 12월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유방암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는 전국 285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단적 평가, 수술, 보조요법 등 17개 지표를 1~5등급으로 분류하여 공개 했다. 평가 결과 한양대학교병원과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1등급에 선정되었고, 특히 한양대학교병원은 지난 2013년 유방암 적정성 평가 1등급에 연이어 최상위 등급인 1등 급을 받았다.

신년 시무식 개최

본원은 지난 1월 2일 함한 비상과 고객과의 소통을 목표 로 '2015 신년 시무식'을 개최했다. 한양대학교병원에서 는 본관 1층 로비에서 박충기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권 성준 병원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와 많은 교직원들이 참 석했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에서는 본관 12층 사랑의 실 천홀에서 김경현 병원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 및 많은 교 직원이 참석했다.

상반기 정년· 명예퇴임식 개최



본원은 지난 2월 23일 신관 6층 세미나실에서 '2015년 상반기 정년·명예퇴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충 기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권성준 한양대학교병원장, 김 경현 한양대학교구리병원장을 비롯해 주요 보직자 및 많 은 교직원이 참석해 감사와 축하의 박수를 보냈다. 21명의 정년·명예퇴임자에게는 본원에서 봉직하는 동안 쌓은 공 로를 인정해서 공로상을 수여했다.

한양대학교병원

성동구도시관리공단과 한혈증 전달식 진행

본원은 지난해 12월 17일 동관 8층 제2회의실에서 성동



구도시관리공단과 어려운 환우 및 성동구 지역주민들을 위한 '한혈증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성준 병원장, 전재범 대외협력실장, 성동구도시관리공단 김종 수 이사장, 상낙원 제2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지난해 12월 19일 식품의약품안 전처에서 약물감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식품의약품안 전처장 표창을 수상했다. 2012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지 역의약품안전센터는 전국 27개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중에 서 국내 약물감시체계 구축 및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인공신장센터, 리모델링 개소식



인공신장센터가 최근 만성콩팥병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 료를 제공하기 위해 리모델링을 마치고 지난해 12월 23 일 개소식을 가졌다. 국내 대부분의 대학병원과 일본에서 도 거의 갖추지 못한 엄격한 국제규격에 맞는 'Double RO' 정수시설을 갖췄으며, 면역 기능이 떨어진 환자들을 위한 격리실과 만성콩팥병 환자들의 생활습관이나 식사 조절, 약물사용 등을 교육하기 위한 교육자료실 등을 마 련해 국내 최상급 치료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간호국, 바자회 수익금 전달

간호국은 지난해 12월 26일 동관 나이트게일룸에서 '사 랑의 작은 바자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사회복지회에 전 달했다. 사회복지회는 수익금을 성동구 내 어려운 이웃에

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13회 QI경진대회' 개최



본원은 지난 2월 13일 본관 3층 강당에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제13회 QI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 에는 지난 1년 동안 환자 만족도 및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 온 9팀이 발표하는 시간을 가 졌다. 대상은 산소수가 재정부 및 누락방지 활동을 통한 병원 수익 증대를 발표한 간호국/본관 18층/본관 15층/ HaRRT팀, 금상은 '위생재료와 처치수가 set매뉴얼 개발 및 적용을 통한 수익증대를 발표한 본관 20층팀, 은상은 '효 율적인 의료폐기물 관리를 통한 처리비용 절감'을 발표한 인사총무팀, 동상은 '응급의료센터 의료진에 대한 설명만 족도 항상 활동을 발표한 응급의료센터팀이 수상했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소아아토피피부염 관리' 건강강좌 개최

본원 소아청소년과 오재원 교수는 지난해 12월 3일 구리 보건소 지하 1층 강당에서 구리시 어린이 아토피 예방 프 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 초청강연회를 갖고 '소아 아토 피피부염 관리'를 주제로 강의했다. 오 교수는 "적절한 온 도와 습도 유지, 피부를 항상 촉촉하고 청결하게, 면 소재 옷 착용, 손톱은 짧게, 집에서 애완동물 안 기르기 등 생 활에서 지속적이고 꾸준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장암, 조기발견이 중요해요' 건강강좌 개최

본원 소화기내과 은창수 교수는 지난해 12월 5일 구리보 건소 지하 1층 강당에서 구리시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은 교수 는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좋은 식습관, 적정 체중, 금연, 금주,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간호국, 제2회 CS리더 워크숍

간호국은 지난해 12월 9일, 12층 소회의실에서 '내부고객 만족을 위한 전략'을 주제로 제2회 CS 리더 워크숍 및 위 축장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CS 리더 워크숍에는 간 호국의 각 부서에서 한 명씩 총 15명이 참석하였다. 남영 자 파트장의 '부정에서 긍정으로 변화시키는 내부고객관 리 기법', 신순교 파트장의 'Fun 한 직원, 강의에 이어 '간호 국, 파트장 및 동료에게 바란다는 주제로 토론 및 발표 하는 시간이 진행됐다.

'해외여행과 감염질환' 건강강좌 개최



본원 감염내과 김지은 교수는 지난 1월 9일 구리보건소 지하 1층 강당에서 구리시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김 교수는 "에볼라바이러스는 해당 지역의 방문을 피해야 하며, 말라 리아와 뎅기열은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홍역은 예방접종률이 없는 67년 이후 출생자는 우선 면역력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제12회 QI경진대회' 개최



본원에서는 지난 1월 28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제12 회 QI경진대회를 본관 12층 사랑의 실천홀에서 열었다. 이날 경진대회에는 총 15개팀이 참가해 의료의 질 향상과 시스템 개선, 고객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를 발표했다. 구연 부문에서는 '중환자실 간호업무 개선'을 통한 비용절감 및 휴가사용률 증진 활동을 발표한 'One off 양~~대요(중환자실, 간호국)팀이 의무부총장상 겸

의료원장상을 수상했고, '영양 불량 환자 관리를 통한 영 양집중지원팀 서비스 향상 활동'을 발표한 '영양자문은 NST'팀에게 병원장상을 수상했다. 소아 채혈 환자 만족도 향상 활동'을 발표한 '엄마 맘처럼(진단검사의학과, 소아청 소년과)팀과 '최고의 내과진료를 위한 의사와 간호사의 협 력 증진 활동'을 발표한 '환상의 콤피네과, 10층 병동'팀이 각각 장려상을 수상했다. 포스터 부문에서는 병원장상에 '특수 약물 복용지도 프로그램의 전산화'의 '약은 약사에게 복약지도도 약사에게(약제팀, 의료정보팀)팀이 수상했고, '정보제공 동영상'을 통한 대기시간 활용 및 만족도 향상 활동 및 만족도 향상 활동의 '여가봐~~~(소화기내과, 소 화기내시경실)팀과 'DRG 적용환자의 비용 절감 활동'의 '살림의 여왕(마취통증의학과, 마취후회복관리실)팀이 각 각 장려상을 수상했다.

'손목통증의 흔한 원인 및 치료' 건강강좌 개최

본원 정형외과 이정일 교수가 지난 2월 6일 구리보건소 지하 1층 강당에서 구리시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이 교수는 "최근에는 손목 관절염 및 미세 한미경을 이용한 다양한 치료법이 적용되어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간호국, 위로금 전달



본원 간호국과 외래팀은 지난 2월 10일 오랜 기간 가족 병간호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내과 유은희 간호사에게 외래팀과 간호국 사무실에서 모금한 위로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2014 성과보고회 개최

본원은 지난해 12월 12일 본원 1층 로비에서 '2014 성 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성과보고회에서 배상철 원장 은 "난치성 류마티스질환 연구와 치료를 위한 임상연구센



터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들이 도출되고 있어 앞으로 류마 티스병원의 미래는 밝다"라고 말했다.

2015년 개원의 연수강좌 개최



본원은 지난 2월 8일 본교 HIT관 6층 대회의실에서 '관절 염의 실용적인 진단과 처방'을 주제로 '2015년 개원의 연 수강좌'를 개최했다. 배상철 원장은 "최신 의학지견과 희귀 질환에 대한 정보도 중요하지만 흔한 질환이어서 놓치기 쉬운 부분을 함께 토의하며 기본을 다지고자 한다"면서 "본원은 기초와 임상에 대한 선도적 연구를 바탕으로 류 마티스질환의 최신의학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는 대학병 원으로서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양대학교국제병원

한국의료관광 우수서비스 공모전, 검진부분 최우수상 수상

본원은 지난해 12월 11일 한국관광공사에서 개최한 '한국 의료관광 우수서비스 공모전'에서 검진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공모전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등록된 의료기 관과 유차단체를 대상으로 중증, 경증, 뷰티, 웰니스, 검진, 한방 등의 분야로 구분하여 의료관광서비스의 우수성, 전 문성, 소비자 보호 및 안전성과 유지 실적 등을 평가했다.

인사, 동정



박예수 교수 대한골다공증학회 논문상 수상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정형외과 박예수 교수는 지난해 10월 26일 서울 아산 병원 6층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골다공증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골다공증 환자'에 있어 연 1회 정주용 졸렌드론산 투여의 순응도 평가라는 논문으로 논문상을 수상했다.



김정태 교수 영국 성형외과학회 초청 강연

한양대학교병원 성형외과 김정태 교수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린 영국 성형외과학회에서 '미세재건수술의 진화'와 '천공지 피판' 등을 주제로 초청 강연을 했다. 또 지난해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National Scientific Center of Surgery 병원에서 안면재건과 유방재건 수술 1례를 시연했다.



이항락 교수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우수연제상 수상

한양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이항락 교수가 지난해 11월 29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4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연제상을 수상했다. 이번 논문의 제목은 '위장판 누공, 천공, 문합부 유출 치료'에 있어 OTSC 치료법의 효과이며, OTSC 치료법을 국내에서 처음 시술해 성공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



김영수 교수 로봇대상에서 대통령상 수상

한양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김영수 교수가 지난해 12월 3일 국내 로봇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산업통신지원부에서 주최한 제1회 대한민국 로봇대상 및 로봇인의 밤 행사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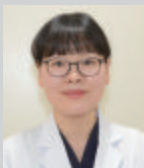
김상현 교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 표창

한양대학교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김상현 교수가 지난해 12월 18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대회의실에서 한 해 동안 의약품 안전정보 제공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배상철 교수팀 '루푸스' 논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게재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류마티스내과 배상철 교수팀의 논문이 국제권위 학술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의 지난해 12월 23일자에 실렸다. 이 논문은 HLA 유전자 변이를 이용해 루푸스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모델에 관한 것이다.



이경식 과장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장 수상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감염관리팀 이경식 과장이 지난해 12월 31일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2014년 국가법정감염병감시사업에 참여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 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장을 수상했다.



황윤신 부장 서울특별시장 표창장 수상

한양대학교병원 병리팀 황윤신 부장이 사회봉사 활동으로 건강한 시민사회 형성과 선진의료기술 보급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월 23일 고려대학교 교우회관에서 서울특별시장 표창장을 수상했다.



한준수 교수 책 '인생 2막을 건강하게' 발간

한양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한준수 교수가 최근 '인생 2막을 건강하게'라는 책을 발간했다. 이 책은 노화와 더불어 찾아오는 질환들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삶과 죽음을 총망라했다.



당뇨병 환자들의 잘못된 생활 습관 개선을 위해 지난해 문을 연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내분비내과 병동의 정확한 명칭은 무엇일까요?

QR코드를 앱으로 스캔하면 한양대학교의료원 블로그(news.hyumc.com)로 이동합니다. 소식지와 블로그에 있는 [한양토픽]을 참고하세요. 3월 말까지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스마트폰에서 QR코드 리더 앱을 다운받아 실행할 수 있습니다.



<http://goo.gl/TtScII>

1+2월호 이벤트 당첨안내

많은 분들이 지난해 이벤트에 참여했습니다. 당첨된 10분께는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렸습니다.

당첨자	
홍종*	whda***@naver.com
이샛*	053***@hanmail.net
윤진*	47lov***@hanmail.net
김명*	erry***@naver.com
김숙*	tjddhrt0***@naver.com
김윤*	yk5***@naver.com
김자*	baby***@hanmail.net
이관*	kwanh***@naver.com
강수*	suhee***@hyumc.com
김영*	dating***@naver.com

언론 속 한양인

TV와 신문에 등장한 한양인을 소개합니다.
2014년 12월 ~ 2015년 1월



「한양대학교병원」 하태경 외과 교수 12월 2일/ KBS 1TV [소비자리포트]/ 긴급 점검 위밴드 수술 실태, 12월 7일/ TV조선 [법대법]/ 내 가족 의로서고 대처법 **조성진 정신건강의학과 전임의** 12월 4일/ SBS [한밤의 TV 연예]/ 피노키오 증후군이란? **김윤신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12월 6일/ KBS [아침뉴스타임]/ 보고 또 보고...찰떡 소비자 급증, 1월 6일/ 채널A [닥터자바고]/ 겨울철 실내 습도 **전대원 소화기내과 교수** 12월 12일/ KBS 1TV [아침뉴스타임]/ 연말 연시, 최고의 숙취 해소법 **김경수 심장내과 교수** 12월 16일/ KBS 2TV [생생정보통]/ 심혈관질환을 관리하는 심장강간법 **김승현 신경과 교수** 12월 23일/ KBS 1TV [사람의 리퀘스트]/ 루게릭병, 1월 8일/ KBS 1TV [생로병사의 비밀] 미래의학 재부 줄기세포, 어디까지 와 있나 **김상현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12월 23일/ KBS 1TV [뉴스광장]/ 겨울방한용품 이렇게 관리! 집먼지진드기 **안희창 성형외과 교수** 12월 27일/ EBS [명의]/ 재건성형 **호정규 산부인과 교수** 12월 28일/ SBS [8시 뉴스] 태아 세포가 엄마 뇌 보

호...신비한 상호 작용 **김희진 신경과 교수** 1월 9일/ KBS 2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뇌 건강을 위해 손발을 많이 쓰자 **노영석 피부과 교수** 1월 21일/ MBC [생방송 오늘아침]/ 내 등에 글씨가? 알고 보니 피부모기증, 1월 23일/ TV조선 [뉴스7]/ 겨울철에 심해지는 건선... 올바른 치료는? **김종수 소아청소년과 교수** 1월 22일/ MBC [리얼스토리 눈]/ 인연 어린아입집 학대 1급 보육교사는 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장성호 재활의학과 교수** 12월 11일/ KBS 1TV [생로병사의 비밀]/ 노졸중, 시간이 생명이다 **조희운 안과 교수** 1월 12일/ KBS 2TV [아침]/ 황반변성 **김지은 감염내과 교수** 1월 14일/ MBN [건강솔루션]/ AI **이창범 내분비대사내과 교수** 1월 26일/ EBS [명의]/ 노년을 위협하는 질환 당뇨병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유태현 류마티스내과 교수** 12월 8일/ JTBC [JTBC 뉴스]/ 류마티스관절염, 주사 아닌 먹는 약으로 치료 도전 **배상철 류마티스내과 교수** 1월 11일/ SBS [8시 뉴스]/ '내 몸이 나를 공격' 자 기면역질환, 진단법 개발



「한양대학교병원」 12월 10일/ 중앙일보/ 유방암 수술 잘하는 곳은 어디?...유방암 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 한양대학교병원 1등급 **노영석 피부과 교수** 12월 10일/ 중앙일보/ '건선성 관절염', 피부과에서 관절을 치료한다! **김희태 신경과 교수** 12월 19일/ 월간헬스조선/ 의사·기자·환자가 추천하는 파킨슨병名医를 찾아라 **박훈기 가정의학과 교수** 1월 5일/ 세계일보/ '끓자 끓여' 클리닉 찾고 보조제 사고...자신과의 싸움 **김희진 신경과 교수** 1월 9일/ 경향신문/ 명예의감 **고주연 피부과 교수** 1월 24일/ 한국경제/ 수족냉증 방지 댄저 할양 유발...지속되면 척추질환 의심해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강보승 응급**

의학과 교수 12월 11일/ 메디파나뉴스/ 술 마신 후 빨개지는 얼굴, 이유 있다? **박용진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1월 14일/ 국민일보/ 우울증과 자살 그리고 술 **오재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1월 19일/ 헬스조선/ 죽음에 예감한 비극적인 낭만 서곡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12월 15일/ 월간헬스조선/ 29년째 '악마'의 병과 전쟁 중 **전재홍 류마티스내과 교수** 1월 26일/ 중앙일보/ 손발 차가운 얼음공주, 피부 굳는 '악마의 병' 의심, 1월 30일/ 경향신문/ 손발 딱딱해지면 전신경화증 의심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모금 캠페인

‘함께 실천하는 한양사랑’ Together & Tomorrow 모금 캠페인이란?

한양대학교병원과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이 힘찬 미래를 향해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매월 일정 금액의 기부금을 급여공제, 무통장 입금 또는 자동이체(CMS)를 통해 사용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는 모금 캠페인입니다.

사용 용도

-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 한양대학교병원 암센터 건립기금
-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관 신축기금
-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연구중심병원 발전기금

※ 발전기금은 법에 의거하여 시설, 연구, 교육, 학술 활동 등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여 대상

한양대학교의료원을 아껴주시는 동문, 환자 및 보호자, 학생 및 학부모, 재단 가족 및 교직원, 일반인 등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발전기금을 기부해주시는 분들에게는 세금공제와 함께 기부금에 따른 예우 혜택이 있습니다.

약정 방법

- 온라인 약정하기 : 한양대학교의료원 홈페이지(www.hyumc.com)
⇒ 발전기금 icon 클릭 ⇒ 함께 실천하는 한양사랑 약정서 다운로드 ⇒ 약정서 작성(서명) ⇒ 팩스(02-2296-3806) 또는 이메일 송부(hmcfund@hyumc.com)

※ 문의 : 한양대학교의료원 대외협력실 대외홍보팀
Tel. 02-2290-9535~6

기부자 예우표

예우내용		기부액	100만원미만	100만원이상	500만원이상	1,000만원이상	5,000만원이상	1억원이상	3억원이상	5억원이상
의료원 행사 VIP 초청								●	●	●
감사패 증정							●	●	●	●
기부증서 발행			●	●	●	●	●	●	●	●
감사서신 발송			●	●	●	●	●	●	●	●
생일 축하카드 발송			●	●	●	●	●	●	●	●
의료원 정기간행물 발송			●	●	●	●	●	●	●	●
기부자 명부 영구 보존			●	●	●	●	●	●	●	●
평생 차량출입증 발급						●	●	●	●	●
의료혜택	전담직원 안내서비스						●	●	●	●
	우선진료 편의 제공					●	●	●	●	●
	우선입원 편의 제공					●	●	●	●	●
	종합 건강검진	본인				30%	50%	70%	100%	100%
		배우자				30%	50%	70%	100%	100%
장례식장 (※ 일부 비용은 제외됨)							20%	30%	50%	100%

※ 기부자 예우 상담문의

• 전화번호 : 02-2290-9535~6 • e-Mail : hmcfund@hyumc.com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약정서

정보동의

☐ 약정서에 기재된 개인정보와 기부금 납입사항은 기부금관리를 위해 보존되며 기부금영수증 발행과 기부자 관리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 정보동의 확인은 필수이며, 기재하신 내용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부자관리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기부자

☐ 동문 ☐ 교직원 ☐ 환자(가족) ☐ 학생(학부모) ☐ 법인(기업) ☐ 기타()

* 해당란에 모두 체크바랍니다(중복체크 가능)

성명 (기업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학적사항(동문기재)	대학(원)	학과(부, 전공)	년도 입학	년도 졸업
직장명	부서		직위	
직장주소 ()				
자택주소 ()				
이메일				
유선연락처	우편물 수령지		☐ 자택	☐ 직장
휴대폰번호	기부 추천인			

약정

약정액	금원 (₩)
약정기간	20년월일 ~ 20년월일까지 - 월()원씩 / 총()회
기부금 용도	☐ 의료원발전기금
	☐ 지정기금 (지정)
	※ 기부금 용도 지정은 필수이며, 「법인세법 24조 2항」에 의거 해당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납입방법

☐ CMS (본인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는 방식)

☒ 금융거래정보의 제공동의서
본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은 다음 금융거래정보(거래은행명, 지정명, 계좌번호)를 출금이체를 신규 신청하는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상기 수납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월정기납	☐ 15일 ☐ 30일	계좌번호
년정기납	()월 ☐ 15일 ☐ 30일	결제은행 은행
비정기납	☐	입금자명
☐ 무통장입금	입금방법 ☐ 일시납 ☐ 분납	입금자명
	입금계좌 신한은행 100-026-273694 (예금주 한양대학교병원)	
☐ 급여공제	※ 교직원만 해당 사번 ()	

약정서 송부 이메일) hmcfund@hyumc.com / 팩스) 02-2296-3806

기타 문의사항 대외협력실 대외홍보팀 (02-2290-9283)

20년월일 기부약정자 (인)

한양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귀하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2014년 12월~2015년 1월 기부자 명단

구분	성명	직장명(소속)	구분	성명	직장명(소속)	구분	성명	직장명(소속)	구분	성명	직장명(소속)
동문	강대진	우리들산부인과의원	교직원	김선옥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노정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손은영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강신화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선주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류명숙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송미라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강영옥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선화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류미순	한양대학교병원	동문	송병주	하나안과의원
교직원	강영의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성애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문상아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송현주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강오열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소연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문슬기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송혜기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강춘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수정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문혜숙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신수경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강해숙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숙미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박명호	한양대학교병원	교수	신인철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	고용	한양대학교국제병원	교수	김순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박미라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신정미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공상훈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승국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박미숙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신희숙	한양대학교병원
동문	곽인영	곽이비인후과의원	교수	김승현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박미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심경아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곽혜영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양선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박미옥	한양대학교병원	교수	안동현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곽희숙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영보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박상혁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안미경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국은영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영철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박선영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안창선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권난희	한양대학교병원	동문	김용호	김용호정신과의원	교직원	박선화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안혜옥	한양대학교병원
병원장	권성준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은철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박소은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애정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권순주	한양대학교병원	동문	김자윤	해민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박시복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교직원	양광식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권연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수	김재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박은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양미영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권영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정례	한양대학교병원	동문	박익수	최박내과의원	교직원	양정자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권오균	한양대학교의료원	교직원	김정미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박재우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양현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경인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정숙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박정하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엄기숙	한양대학교병원
동문	김경중	한양정신건강의학과의원	교직원	김정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박종국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여은주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금례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정희	한양대학교병원	동문	박종민	젤피부과의원	교직원	오기향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기라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준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박종주	한양대학교병원	교수	오동훈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기석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지숙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박주리	한양대학교병원	교수	오상우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동문	김기찬	김기찬내과	교직원	김지은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박지경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오수진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나영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지현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박진용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오연이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나현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지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박찬남	한양대학교병원	교수	오영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김대성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진순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박현정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오재혁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대희	한양대학교국제병원	교직원	김창금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박혜순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오주연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동훈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춘애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방성주	한양대학교의료원	동문	오홍석	용인정신병원
교직원	김령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택순	한양대학교병원	병원장	배상철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우춘미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령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수	김혁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배영주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유호선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명란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현주	한양대학교병원	교수	백두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직원	윤미영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명숙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현창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백유란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윤미현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명윤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혜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백초숙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윤선미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미성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혜명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백희준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윤선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미혜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혜원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서서영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윤성익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민선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화선	한양대학교의료원	국장	서재관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윤원경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민주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휘규	한양대학교병원	교수	설인준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윤인숙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민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희나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성명순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윤정화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병숙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남궁정민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성안나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윤향순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김봉건	한양대학교병원	교수	남정현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성외순	한양대학교국제병원	교직원	윤현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김봉유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동문	노만희	노만희정신과의원	교직원	성정순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음희재	한양대학교병원
교수	김석현	한양대학교병원	학장	노영석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직원	손우경	한양대학교병원	동문	이경섭	이경섭정신과의원

구분	성명	직장명(소속)	구분	성명	직장명(소속)	구분	성명	직장명(소속)	구분	성명	직장명(소속)
교직원	이경순	한양대학교병원	교수	전재범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하주현	한양대학교병원	* 기부금 명단은 가나다순입니다.		
교직원	이경철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전현효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한미경	한양대학교병원			
동문	이경하	해남해민병원	교직원	전형수	한양대학교의료원	교직원	한지홍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경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전희래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한현남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경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정순애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한현수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금미	한양대학교병원	동문	정승원	상쾌한이비인후과	동문	허윤석	분당지상정신과의원			
교직원	이다은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정옥숙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홍경표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도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정유정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홍섭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명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정일웅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동문	홍성우	홍성우피부과의원			
동문	이미경	삼성서울병원임상연구부	교직원	정정림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홍은아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미경	한양대학교병원	교수	정진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홍은자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민자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정찬호	한양대학교의료원	교직원	홍정호	한양대학교병원			
동문	이석환	이석환신경정신과의원	교직원	정대순	한양대학교병원	동문	황문숙	우석대학교			
교직원	이숙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정혜경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황미향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숙희	한양대학교병원	고객		제이비전	실장	황성우	한양대학교의료원			
교직원	이순우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조가나	한양대학교병원	교수	황세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직원	이슬아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조경숙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황윤신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승민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조광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황의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이양섭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조문형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황인남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용숙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조미행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황준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이우식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조성하	한양대학교병원						
기자	이은빈	의협신문	교직원	조영완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은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조은영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이자경	한양대학교병원	동문	조재민	조은이비인후과의원						
교직원	이정민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조현남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정민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조현민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종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조현민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종숙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조현주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주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주임선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지숙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진춘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충기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차경옥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현주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채선자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이혜인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채숙련	한양대학교병원						
동문	임동수	임신경정신과의원	교직원	최근배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임연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최미경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임지상	한양대학교병원	교수	최보울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직원	임지영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최선미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임찬식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최순애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장유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최인숙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장일현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최재범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장정아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최정연	한양대학교의료원						
교직원	전미선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최정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전선희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최현미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전영혜	한양대학교병원	교직원	최희숙	한양대학교병원						

Culture Calendar



3
March

3.6 FRI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피아노 독주
- 이명환
12시 30분
본관 1층 로비

3.9 MON

**한양대학교병원
사랑의 음악회**
마리나타 앙상블 음악회
오후 7시
본관 1층 로비

3.13 FRI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피아노 독주, 임선주
오후 12시 30분
본관 1층 로비

3.20 FRI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비엔나국립대학
- 안명진(바이올린) 외 8인
오후 12시 30분
본관 1층 로비

3.27 FRI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에벤에셀 합창
오후 12시 30분
본관 1층 로비

3.28 SAT

**한양대학교병원
건강강좌**
루게릭병클리닉 환우 및
가족 교육 프로그램
- 박진석 교수, 추현식 간호사
오전 9시 30분
본관 3층 강당

4
April

4.3 FRI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피아노 독주_이명환
오후 12시 30분
본관 1층 로비

4.6 MON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내밀 콘서트 - 황재경 목사
- Grace Chistian College
오후 7시
본관 1층 로비

4.10 FRI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피아노 독주
- 전재홍
오후 12시 30분
본관 1층 로비

4.17 FRI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구리기타 앙상블
오후 12시 30분
본관 1층 로비

4.25 SAT

**한양대학교병원
건강강좌**
루게릭병의 복지정책과 심리상담
- 성명순 사회복지사
본관 3층 강당

4.27 FRI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색소폰 연주
- 원요섭
오후 12시 30분
본관 1층 로비

한양대학교병원 외래 진료 시간표

■ 대표전화 : 02 - 2290 - 8114 ■ 응급실 : 02 - 2290 - 8282 ■ 전화예약 : 1577 - 6382 ■ 진료의뢰센터 : 02 - 2290 - 9717

http://m.hyumc.com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소화기내과 2290-8303	이창홍 최호순 윤병철 이오영 전대원 이항락 이강택 김영택 이강원 곽주희 임동희	월 화 수 목 금 월 수 목 토(주) 월 수 토(4주) 월 화 목 토(2주) 금 토(3주) 화 수 목 월 수 토	월 월 목 수 금 월 화 월 화 수 금 화 수 금	간질환 간질환, 담낭, 담도, 췌장 식도, 위, 장 식도, 위, 장 간질환 식도, 위, 장 식도, 위, 장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심장내과 2290-8700	임현길 김경수 신진호 임영효 박진규	월 목 화 목 토(2주) 월 수 금 토(4주) 수 금 토(1주) 화 토(3주)	월 수 화 금 수 월 목 월 목 화 목 금	부정맥, 인공심장박동기, 고혈압 허혈성심장질환, 심혈관 중재술, 심장출기세포치로, 협심증, 고혈압, 부정맥 심부전, 심혈관 중재술, 허혈성심장질환(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심부전, 말초동맥질환, 일반심장질환 일반심장내과질환
신장내과 2290-8300	강종명 김근호 이창화 박준성	월 화 수 금 월 금 토(3,4주) 수 목 토(12주) 화 목 토(3주)	화 목 월 금 월 금 월 수	사구체신염 만성신부전증, 신장이식, 혈액투석 전해질환, 고혈압, 심부전, 부종, 복막투석 사구체신염, 신장이식, 혈액투석, 복막투석 일반 신장내과질환
내분비 대사내과 2290-8300	안유현 최응환 김동선 박정환	월 화 수 목 토(주) 월 화 수 금 토(주) 월 수 목 토(3주) 화 토(4주)	수 월 화 금 수 목 금 수 목 금	당뇨병, 갑상선, 골다공증, 비만, 뇌하수체 당뇨병, 갑상선, 골다공증, 비만 당뇨병, 뇌하수체, 갑상선 일반 내분비대사 질환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2290-8302	신동호 윤호주 손장원 김상현 박동원 이지영	토(3주) 월 수 토(4주) 월 화 목 토(2주) 화 목 금 토(주) 수 목 목 금	화 목 수 목 금 월 월 화 수 금 월	폐암, 폐결핵, 폐렴, 간질성폐결핵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폐암, 폐결핵 폐결핵, 폐렴, 폐암 천식, 알레르기, 면역성폐질환 일반 호흡기내과질환 일반 호흡기내과질환
혈액종양내과 2290-8300	이영열 박병배 이준호 엄지은	월 수 화 목 월 화 수 금 금	화 목 월 금 목 월 화 수	만성혈액질환, 골수이형성증, 조혈모세포이식 고형암, 림프종, 혈액질환, 골수이식 위암, 대장암, 식도암, 담도암, 췌장암, 간암, 폐암, 위암 급성백혈병, 골수이형성증, 재생불량성빈혈, 조혈모세포이식
감염내과	배현주	목	월 목	감염질환, 불명열, HIV클리닉, 여행지클리닉
소아청소년과 2290-8380 제대혈클리닉▲	설인준 오성희 김남수 이영호 김용주 박현경 이현주 이경석	화 목 목 금 월 수 토(2주) 월(구리), 금▲ 월 화 수 토(주) 화 토(3주) 토(4주) 화 금	월 수(구리) 월 화 화 수 수 목 금 목 목 금 목 금	소아신경 및 근육질환, 소아간질 소아감염질환 소아심장질환 조혈모세포이식, 소아혈액, 소아암 소아소화기영양 육아상담실, 산생아 및 미숙아질환 육아상담실, 산생아 및 미숙아질환 호흡기알레르기
육아지도실 2290-8871	박현경 이현주	월 수 목 금	월	육아상담실, 산생아 및 미숙아질환 육아상담실, 산생아 및 미숙아질환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신경과 2290-8367/ 8368 세포치료센터 &클리닉▲ 2290-9377 서관 7층	김주한 김승현 김희태 김현영 김희진 김영서 오기욱 강석재 박진석	월 수 월 금 토(주) 화 수(이상운동장애) 목▲ 해 외 화▲ 금 화 목 토(2,3주) 월▲ 금 토(4주) 금 토(2주) 화 토(1,3주)	월 수 월 수 목 화 금 월 목 화 수 월 목 화 수 금	간질, 실신, 수면장애, 하지불안증후군 말초신경 및 근육질환, 치매 및 루게릭병 이상운동질환(파킨슨), 손떨림, 뇌졸중 연 수 치매 및 인지기능장애, 뇌졸중 뇌졸중, 두통, 어지럼증 말초신경계질환, 근육병질환, 두통 이상운동질환, 두통, 일반신경과질환 말초신경 및 근육질환, 두통, 일반신경과질환
정신건강의학과 2290-8419	안동현 김석현 오동훈 조성진 이동준	수 토(4주) 화 금 토(2주) 월 목 토(13주) 목 토(5주) 월	월 수 목 화 금 월 목 화 수 목	소아정신의학, 발달장애, 과잉행동증후군 정신약물학,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노년정신의학, 정신신체의학, 일반정신과질환 소아정신의학 소아정신의학
피부과 2290-8434	노영석 고주연 김정은	월 금 화 목 토(2,4주) 월 수 토(3,5주)	월 금 화 수 목 금	아토피 피부염, 여드름, 탈모, 간선 여드름, 피부미용, 레이저, 알레르기성 피부 질환, 결체조직 질환, 피부암 피부미용, 레이저, 색소질환, 간선, 백반증, 대상포진 무좀 및 진균성 질환, 피부암
외과 2290-8444	권성준 권오정 이경근 최동호 이강홍 정민성 하태경 안병규 이주희	수 금 월 화 금 수 목 토(1주) 목 토(2주) 목 월 화 월 토(3주) 토(4주)	수 목 목 월 화 월 목 수 금 월 금	위, 십이지장질환 이식, 혈관질환 간, 담도, 췌장질환, 복강경수술 간, 간이식, 담도, 췌장질환,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대장항문질환,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유방질환, 유방암, 갑상선종양 복강경로봇수술, 비만대사질환, 복강경수술 대장항문질환, 복강경수술, 일반 외과질환, 복강경탈장수술 위암, 상부위장관, 복강경로봇, 외과질환 및 탈장수술, 비만대사
소아외과	하태경	월		복강경소아외과수술, 선천성질환, 탈장수술
흉부외과 2290-8461	김영학 정원상 김 혁	화 화 목 월 수	화 금 화 목 월 수	관상동맥질환, 심장판막질환, 심장이식 폐 및 식도외과, 종격동, 흉강경수술, 폐이식 심장판막질환, 선천성 심장질환, 흉강경수술, 대동맥수술
정형외과 2290-8473	김태승 이광현 최충혁 성일훈 강창남 이봉근 김이석 황규태 이진규	토 월 수 금 토(3,4주) 월 수 화 목 토(2,3주) 월 화 목 화 금 목 토	월 목 수 화 수 화 목 금 월	사지근골격계종양 클리닉, 소아정형외과학 수부외과클리닉(미세수술), 주관절학 슬관절클리닉(관절경화, 인공슬관절치환술), 스포츠의학 족부클리닉, 당뇨발, 변형교정, 스포츠의학 척추클리닉, 골다공증 견관절클리닉, 관절경, 외상학, 미세수술, 스포츠의학 고관절클리닉, 외상학, 골다공증, 스포츠의학 고관절, 골절, 외상(스포츠손상), 근골격계 다발성 손상 슬관절클리닉(관절경화, 인공슬관절치환술), 스포츠의학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외래 진료 시간표

■ 대표전화 : 031－560－2114

■ 응급실 : 031－560－2050

■ 전화예약 : 1577－9382

■ 진료의뢰센터 : 031－560－2082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신경외과 2290－8491	오석전	목	화	뇌종양, 척추질환 (요추디스크,경추부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척수종양)
	고 웅	월 수, 토(2주)	월	뇌혈관질환, 미세극소침습뇌수술, 내시경뇌화수체 수술, 뇌신경질환
	김영수	화	화, 목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삼차신경통 및 통증성질환, 뇌종양
	백광흠 이형중	월 수, 토(3주) 금	금 수	디스크 요통, 척추질환, 내시경디스크수술, 척수종양
	전형준	금, 토(14주)	수	뇌혈관질환, 혈관내수술, 두부손상, 뇌졸중, 두통, 퇴행성 신경손상
	변형수 한명훈		수 금	요추디스크, 척추관협착증, 팔자림증, 신경손상, 통증성질환, 척수종양
성형외과 2290－8560	안희창	수, 금	월	일반재건 및 상형, 선택성 얼굴기형, 레이노드병, 손재건
	김정태	월, 금	수	재건성형수술, 유방, 두경부, 사지재건, 미세수술, 미용성형
	윤진호 김연환	월 수 화, 목, 토(13주)	화, 금 화	비만성형, 미용성형, 미세재건수술, 안면골절 및 외상, 미용성형과, 일반성형, 피부종양, 피부반흔교정, 욕창
	안용수	토(24주)	월, 목	미용성형(코, 눈), 피부미용, 액취증, 안면부 외상
산부인과 2290－8400	황정혜	수, 금	월	일반 산부인과,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폐경, 불임, 시험관아기
	최종섭	월 수, 토(5주)	수, 금	일반 산부인과, 난소암, 자궁암, 로봇수술,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호정규	월 화, 목, 토(2주)	수, 목	일반 산부인과, 고위험임신, 조산,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배재만	화, 토(13주)	월, 목	일반산부인과, 난소암, 자궁암, 로봇수술,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이원무	목, 금, 토(24주)	화	일반산부인과, 난소암, 자궁암, 로봇수술,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정언석	금, 토(13주)	월	일반 산부인과
안과 2290－8570	엄기방 이병로 송인석 임한웅 문상원 이주향	월 수 화, 목, 토(3주) 금, 토(13,5주) 금, 토(24주) 토	금 목 월, 화, 수 월 월 화	녹내장, 백내장, 망막, 유리체, 백내장, 포도막, 일반 안과질환, 외안부, 각막, 콘택트렌즈, 백내장, 소아안과, 사시, 안성형, 신경안과, 마숙아망막, 일반안과질환, 안성형, 기타 안과질환
이비인후과 2290－8580	박철원 김경래	화, 금, 토(1주) 목, 토(2주)	화 월, 목	만성중이염, 난청, 어지러움증, 이명, 안면신경마비, 부비동염, 알레르기성비염, 코골이, 코성형, 악안면외상, 부비동내시경, 두경부종양, 갑상선종양, 로봇갑상선수술, 경부종물, 음성장애
	태 경	월 수		부비동염, 알레르기비염, 부비동내시경, 코골이, 코성형, 악안면외상, 수면무호흡
	조석현	화, 금, 토(3주)	화	두경부종양, 갑상선종양, 경부종물, 음성장애, 구강 편도질환
	송창면	월, 토(4주)	월 수, 금	두경부종양, 갑상선종양, 경부종물, 음성장애, 구강 편도질환
	성의숙	수, 토(5주)	금	일반이비인후과, 부비동염, 알레르기비염, 난청, 어지럼증, 이명
	박 건	목	수	
비뇨기과 2290－8593	이춘용	월, 토(1주)	화, 목	비뇨기종양, 복강경 및 로봇수술, 전립선질환, 신결석
	박해영 김용태 박성열	수, 금, 토(2주) 화, 목, 토(4주) 해 외	월 수, 금 수, 금 수, 금	신장이식 및 남성과학, 신결석, 전립선질환, 비뇨기질환, 배뇨장애, 요실금, 전립선질환, 비뇨기종양, 신장질환, 신결석, 연 수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재활의학과 2290－9350	김미정 김태곤	월 수, 금, 토(4주) 화, 목, 토(2주) 월▲	월 수 화,목(13주), 금	소아재활, 근골격계재활,노인재활, 뇌신경재활, 근골격계 재활, 뇌신경 재활, 척추손상 재활, 루게릭클리닉(사관 7층 세포치료센터)
	방사선종양학과 2290－8614	전하정 박해진	월~금 월, 목	방사선종양학 방사선종양학
핵의학과 2290－9260	최윤영 김지영	최윤영 토(24주)	수 월	갑상선 동위원소 치료 일반진료
	치과 2290－8671	이영수 황경균	목, 금 월, 화, 목	임플란트, 완전/부분틀니, 심미보철, 턱알골성형수술, 임플란트, 턱관절질환, 침샘질환, 코골이장치 연 수
	박창주 한지영 임재중 김태건 전재윤	해 외 월~금 월~금 월, 화, 금 수	월, 화, 금 월, 화, 목 월, 화, 금 화, 수, 목, 금	치주질환, 치주성형, 치주조직재생, 임플란트, 심미교정, 설측교정, 금속교정, 수술교정, 보존치료, 심미수복치료, 근관치료, 치아미백, 악교정수술, 턱관절질환, 임플란트, 구강내소수술, 사랑니발치
	심광섭	월, 화, 금	수	턱골괴사성, 임플란트, 턱관절질환
가정의학과 2290－8738	박훈기 황환식 박석원	수, 금, 토(2주) 월, 화, 목, 토(4주) 화, 수	월, 목 금 화, 수	스포츠의학 건강증진의학, 노인의학, 건강증진의학
	직업환경의학과 2290－9777	송재철 이수진	월, 화(24주), 목 화(1,3,5주), 수, 금	환경 및 산업의학, 직업성 천식, 근골격계질환, 새집증후군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동관 1층 : 02－2290－9216, 9217, 9226

류마티스내과 2290－9216	유대현	월, 화, 목 월 수, 목, 토(2주)	화, 수 월, 목	류마티스·퇴행성관절염, 성인형스틸병, 근염
	배상철	월 수, 목, 토(2주)	월, 목	류마티스·퇴행성관절염, 루푸스
	전재범	화, 수, 금, 토(4주)	목, 금	류마티스·퇴행성관절염, 경피증, 통풍
	김태환	화, 목, 토(2주)	월, 화, 목	류마티스·퇴행성관절염, 강직성척추염
	성윤경	월 화, 수, 금, 토(4주)	수	류마티스·퇴행성관절염, 루푸스, 강직성척추염
	최찬범	월 수, 금, 토(4주)	수, 금	류마티스·퇴행성관절염, 루푸스, 강직성척추염, 섬유근통, 쇼그렌증후군
	조수경	월 수, 목, 토(2주)	월	류마티스·퇴행성관절염, 루푸스, 강직성척추염, 베체트병
	김진주	화, 수	월, 화	류마티스·퇴행성관절염, 루푸스, 강직성척추염, 섬유근통, 쇼그랜증후군
	주영빈	월, 목, 금, 토(4주)	목	류마티스·퇴행성관절염, 루푸스, 강직성척추염, 섬유근통, 쇼그랜증후군
	최정임	토(2주)	수, 금	류마티스·퇴행성관절염, 루푸스, 강직성척추염, 섬유근통, 쇼그랜증후군
관절재활의학과 2290－9226	박시복	수, 금	월 수	족부재활, 류마티스재활, 근골격재활
	이규훈	월, 화, 목	화, 목	족부재활, 관절재활, 스포츠의학
통증의학과 2290－9216	심재철	월 수, 목, 금		신경병증성통증, 척추통증
골·관절외과 2290－9216	최종혁		월	슬관절클리닉(관절경, 인공슬관절치환술), 류마티스슬관절염
	이봉근 이진규	목 화		전주관절, 화전개질환, 류마티스질환, 관절경, 관절, 슬관절클리닉(관절경, 인공슬관절치환술), 류마티스슬관절염

한양대학교국제병원

서관 3층 : 02－2290－9550, 9551, 9552

종합검진 2290－9550 (ARS)	고 웅 박훈기 황환식 박석원 김정현	화, 수 화, 수 월, 목 목, 금	화, 수 화, 수 월, 목 목, 금	뇌혈관질환, 뇌신경질환, 뇌종양, 척추질환, 스포츠의학, 건강증진의학, 노인의학, 가정의학
	Global healthcare, 심장내과			
여행자 클리닉 성형외과 국제진료	배한주 김정태 김연환	수 월, 목 화, 금	수, 금 목	감염질환, 불명열, HIV클리닉, 여행자 클리닉, 재건성형수술, 유방, 두경부, 사지재건, 미세수술, 미용성형, 미세재건수술(사지재건), 안면골절 및 외상, 미용성형(코), 피부종양, 피부반흔교정, 욕창

* 2015년 3월 기준이며, 시간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진료는 각 외래로 문의 바랍니다.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소화기내과 560-2219	손주현 한동수 전용철 은창수 유교상 김태엽 김선민 노영욱 정종관	화 월, 목 월, 금 수, 금 화, 수, 토(24주) 목, 토(13주) 토	월, 목 화 수 월 목 화, 수, 금 수 월 화	각종 간질환(간염,간경변증,간암) 대장질환(만성궤양성 대장질환) 소화기, 위장관질환 소화기, 위장관질환 담도, 췌장질환, 소화기질환 간질환 소화기질환 소화기질환 소화기질환
심장내과 560-2220	김순길 최성일 박환철 신정훈	월, 화, 금 목 화, 수, 토(3주) 토(24주)	목 월, 수, 금 화 월, 화, 목	임상심장학, 고혈압, 허혈성심질환 고혈압,허혈성심질환 고혈압, 부정맥질환 허혈성심질환, 고혈압
신장내과 560-2220	김호중 한상웅 이주학 윤혜진	월, 화, 목 월,수,금 화,목,토 수	월 화, 목 수 금	임상신장학, 만성콩팥병, 신장이식 만성콩팥병, 고혈압, 혈뇨, 신장염 임상신장학, 만성콩팥병, 고혈압 만성콩팥병, 고혈압, 사구체 신염
내분비대사내과 560-2220	박용수 이창범 홍상모	월,금,토(34주) 수,목,토(12주) 월,화	화,목 월,수 월,수,금	당뇨병, 갑상선질환, 골다공증 당뇨병, 갑상선질환, 비만증 당뇨병, 갑상선, 골다공증 일반내분비
류마티스내과 560-2220	이혜순 방소영	월,수,목,토(2주) 수▲,목▲ 화,금,토(24주)	화 수,목 수▲,목▲	류마티스관절염,퇴행성관절염,통풍,루푸스,베체트병 만성통증, 섬유근통, 관절통 류마티스관절염,퇴행성관절염,통풍,루푸스,베체트병 만성통증, 섬유근통, 관절통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560-2220	김태형 문지용	월,수,토(13주) 화,목,금,토(24주)	화,목 월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결핵 만성기침, 호흡곤란, 천식, COPD, 결핵, 폐암
혈액종양내과 560-2220	최정혜 원영웅	화,목,토(24주) 월,수,금,토(4주)	월,수 화,목	혈액암, 빈혈 및 혈액질환, 고형암 혈액암, 빈혈 및 혈액질환, 고형암
감염내과 560-2220	김지은	월,목,토(24주)	화,수	감염질환, 불명열, HIV, 해외여행자
소아청소년과 560-2250	김창렬 오재원 문진화 이영호 이강식	화,수,금,토(4주) 월,화,목,토(2주) 월,수,금,토(3주) 월 토(1주)	화,금 화,목 월,수 수	신생아학, 영아신경발달 및 질환 소아호흡기, 알레르기 및 면역질환 소아신경 소아혈액종양 소아호흡기, 알레르기
신경과 560-2260	이영주	화,금	화,목,금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 어지러움증, 하지불안증후군
	이규용 고성호 최호진 임형균	월,수,목 월,수,목 월,화,목,토 화,수,금	월,수 월,수 목 금	뇌졸중,두통,말초신경증,하지불안증후군,손떨림 뇌졸중, 신경퇴행성질환(치매, 파킨슨병), 치매, 뇌졸중, 두통 어지럼증, 뇌전증, 수면장애
정신건강 의학과 560-2270	박용천 김대호 최준호	월,목 화,목 월,수,금,토(24주)	월,목 월,화 수	문화정신의학, 정신분석, 정신치료 PTSD, 불안장애, EMDR 신경영상학, 정신분열증, 조울증
신경외과 560-2320	김충현 김재민	월,금,토(1주) 수,목,토(2주)	수 월	뇌종양, 뇌졸중, 척추 및 말초신경질환 뇌혈관질환,두개저부,뇌종양 및 뇌동맥류, 뇌종양
	정진환 류제일 최규선	월,토(4주) 화,수,토(3주)	화,목 금 월,수	두부외상, 뇌혈관질환, 뇌혈관내수술 척추질환, 척수종양, 두부외상 두부외상, 척추질환,통증,일반신경외과 질환
흉부외과 560-2300	이철범 노선균 남승혁	월,목 화 수,금	월 화,수,목 금	폐질환, 식도질환, 흉부외상 심장질환, 대동맥 및 혈관질환 폐질환, 다한증, 흉강경수술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정형외과 560-2310	김영호 박태수 박예수 김종현	월, 수, 금 화, 목 수, 금, 토(2주) 목, 토(4주)	수 화, 목 월 화, 수	인공관절 치환술, 골절(고관절 및 슬관절, 견관절, 주관절, 슬관절, 스포츠의학, 관절 퇴행성 및 골다공성 척추질환, 척추기형, 무릎관절염, 스포츠손상 (인공관절, 관절경수술)
	박기철 이정일	화, 토(1주) 월, 토(3주)	목, 금 월, 금	사지골절, 골반골절, 사지변형교정술, 수부 및 손목관절, 미세재건외과, 말초신경마비
산부인과 560-2340	김승룡 이정환 고이랴	월, 수, 금 화, 목	수 월, 목 화, 금	내시경수술, 불임, 부인질환, 산과, 내시경수술, 비뇨부인과, 산과, 내시경수술, 부인종양
	최승석 이장현 류재만	월, 금 화, 목, 토 수	수 화, 목, 토 화, 금	말초신경 및 수부재건, 유방성형, 미용성형, 악안면 및 미용성형, 일반 성형외과질환
외과 560-2290	남영수 박환겸 김한준 김민규 최민영 윤정아	월, 수 화, 목, 토(2주) 화, 금, 토(1주) 토(3주) 금, 토(4주) 목	목 목 목 화, 수, 금 월, 화 월	대장항문병, 유방암, 갑상선질환, 간담체질환, 복강경수술, 간담체질환, 상부 위장관 질환, 복강경 위절제술, 탈장, 유방, 갑상선질환, 대장항문병
	안과 560-2350	조희윤	화, 목	목
성민철 강민호 임한웅		수, 금 월, 화, 토 월, 토(1,3주)	월, 수 화, 금 수, 목	녹내장, 백내장, 외안부, 굴절, 백내장, 안성형, 사시
피부과 560-2280	유희준 김정수 백준오	월, 화, 금 수, 목, 토 화	화, 목 월, 수 수, 금	무좀 및 조갑백선, 피부알레르기질환, 피부미용, 피부외과, 소아피부질환, 일반 피부과질환, 피부미용
	이비인후과 560-2360	이승환 정진혁	월, 수 화	목 화, 금
지용배 정재호 오재호		월, 수, 토(2주) 목, 토(3주) 화, 토(4주)	수 월, 수 목, 금	두경부종양, 갑상선종양, 경부종물, 음성장애, 어지럼증, 난청, 이명, 중이염
신명철		금, 토(1주)	월, 화	비부비동내시경, 비중격 만곡증, 알레르기비염, 일반·소아 이비인후과, 비부비동내시경, 비중격 만곡증, 알레르기비염, 일반·소아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560-2370	최홍용 문홍상	화, 목 수, 토(4주)	목 월, 수	결석, 전립선질환, 요실금, 비뇨기 종양,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질환, 배뇨장애, 요실금
	이승욱	월, 금, 토(1,3주)	화	복강경수술, 종양, 남성과학
재활의학과 560-2380	장성호 한승훈 조영필	월, 화, 수▲, 금 수, 목 목▲	월, 수 화, 수▲, 목 목▲	근골격계, 스포츠의학, 노인의학, 근골격계, 소아재활, 뇌질환, 스포츠 재활, 어깨통증, 목 통증, 허리통증
치과 560-2660	박원희	월, 화, 수, 목, 토(1,2주)	수	보철, 임플란트, 틀니, 미백
통증클리닉 560-2095	심재향	월, 수, 금	월, 금	요통, 관절통, 만성통증, 암성통증, 통증질환
핵의학과 560-2730	김영환		화	종양핵의학
영상의학과 560-2320	오지영	월~금	월~금	혈관 및 비혈관계 인터벤션 시술

* 2015년 2월 기준이며, 시간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진료는 각 외래로 문의 바랍니다.

한양대학교병원, 환자 맞춤형 치료 암에 강하다



한양대학교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적정성 평가 '대장암·폐암·유방암' 분야에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진료량 평가에서도 '위암·간암·췌장암·고관절치환술' 분야에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바탕에는 최신의 장비를 갖춘 암센터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진의 시너지가 있었습니다. 특히 암센터 내 15개의 세부 진료센터는 유기적인 다학제적 진료 시스템을 통해 환자 맞춤형 치료의 발판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한양대학교병원은 1등급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암환자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